

열정이 넘치는 학교 · 학생이 행복한 학교 ·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입니다



BOIN HIGH SCHOOL MAGAZINE

Play Boin



CONTENTS

01. 들어가며

- 06 인사말 | 김석한 이사장님
- 08 인사말 | 김종환 교장 선생님
- 10 인터뷰 | 김중구 선배님
- 16 인터뷰 | 김주경 선배님

02. 우리들의 글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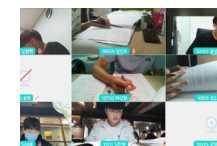
- 22 고3 합격수기
- 30 백일장 우수 작품
- 34 경제 대회 보고서 우수 작품
- 42 자기주도학습보고서 우수 작품

03. 기획 코너



- 46 동아리 진로 기사
- 66 학교 동아리 인터뷰 | ① 보인극단
- 68 학교 동아리 인터뷰 | ② 예비교사동아리 비트(BEAT)
- 70 학교 동아리 인터뷰 | ③ 토론동아리 Essentia
- 72 학창시절을 풍요롭게 한 이 노래를 소개합니다

04. 코로나 특집 코너



- 82 코로나 앙케이트
- 94 영화비평 - 영화 감기와 코로나19
- 96 '아무작품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05. 보인고 이모저모



- 100 선생님! 궁금합니다! ❶ | 광광용 선생님
- 103 선생님! 궁금합니다! ❷ | 정종목 선생님
- 106 선생님! 궁금합니다! ❸ | 한승이 선생님
- 108 학급별 금훈을 소개합니다
- 111 고3의 마무리 한 마디

06. 교지 편집부 후기

- 114 2021년 교지를 꾸리며

2020 보인고 교지 · 통권 제22호

발행인 | 교장 김종환 기획·취재 | 교지편집부(지도교사 지소현)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9길 18 전화: 02)2043-6021 · <http://www.boin.hs.kr>

기획·편집: 사회작업·장애인기업 스킨프린팅그룹(주) 02)2285-3366 · <http://schoolpt.co.kr>

Boin High School

들어가며



봄 길 / 정호승

길이 끝난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Boin High School

CHANGE MAKES CHANGE!

BOIN HIGH SCHOOL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後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後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일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삶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그들처럼 행복해지는 길 일거리고, 무서운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이 '변화'임에도 말이죠.

'코로나'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2020년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팬데믹에 사회 모든 영역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이 위기에 대응한 과정을 보면 각 영역들의 생존 및 발전가능성,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역량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포함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한 학교는 전례 없는 새로운 교육방향을 창조하는 리더의 자리를 꿰찼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교육 수요자들의 차가운 비판과 외면에 존재의 필요성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편승하여 두려움을 공유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삼아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한 집단은 또 다른 위기에 대한 백신을 투여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짧은 두 문단을 통해 이사장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꾀하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되면 '변화'를 꾀하세요. 결국 '변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로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몸에 벤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보인 중·고등학교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김석한



위기의 기회로!

BOIN HIGH SCHOOL

'잃어버린 한 해'라는 말이 어울리는 2020년, 모든 것이 낯선 한 해였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우리 학교 또한 처음 겪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침 아래 교직원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배움이 가치 실현은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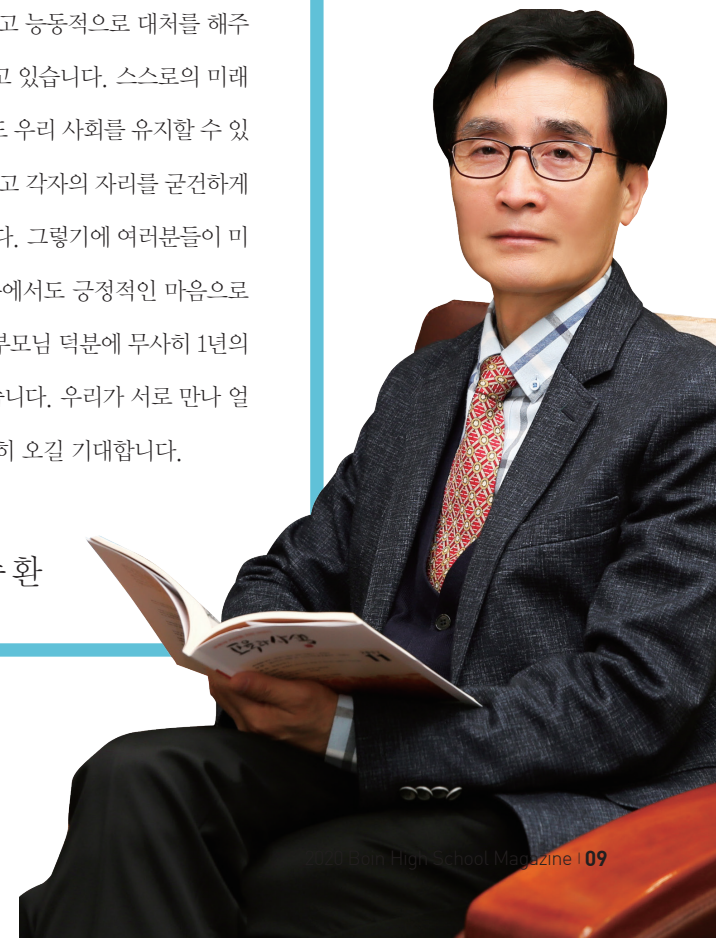


'잃어버린 한 해'라는 말이 어울리는 2020년, 모든 것이 낯선 한 해였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우리 학교 또한 처음 겪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침 아래 교직원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배움이 가치 실현은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페스트'가 창궐한 폐쇄된 도시 안에서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오랑 시를 강타한 페스트로 인하여 도시는 위험이 감돌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 주인공 리유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성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보인 가족 여러분,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구성원들의 연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늘 자신의 자리에서 힘써 새롭게, 바르게, 베풀며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자랑스런 보인인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익숙했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날마다, 새롭게, 바르게' 함께 했을 시간들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처음 겪는 이런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보인인은 침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어울리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들, 구급대원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또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늘 아낌없이 지지해주시는 학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1년의 시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환하게 웃으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종환





‘큰 바다가 되려면 작은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2020년도 지나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가고 있다. 2021년은 2020년과는 다른 해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각각의 진로에 맞게 보인고등학교 교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2020년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또 새로운 일 년을 맞이해야 할까? 교지편집부 온새미로는 이런 우리들에게 뜻깊은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을 찾아보았고,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세계적 기업 KNJ엔지니어링 김종구 회장을 찾아뵙게 되었다. 김종구 회장은 보인 34기 졸업생으로 대기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계신 선배님이시다. 연말 바쁜 일정으로 인터뷰가 가능할까 했던 걱정과 달리, 흔쾌히 후배들의 방문을 허락해 주셨다.

보인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

김종구 KNJ엔지니어링 회장



KNJ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대기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발전해온 회사이다. 롯데월드타워에도 외국 바이어들을 위한 사무실이 있다. 이 회사는 대기분야 즉, 대기오염 배출원, 일반환경대기 및 실내공기의 시료채취기 및 상시 감시시스템을 제조, 공급(수입/수출), 설치, 측정, 유지보수관리를 해오고 있다. KNJ엔지니어링은 대기 분야에서 업계 최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학생 : 안녕하세요, 선배님. 바쁘신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질문 1) 약 30년 전인 학창시절 때 보인고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김종구 선배님 아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친구들끼리 싸우는거 말인가요?(웃으시면서) 저는 학교에서 특별히 다른 학우들과 어울리고 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이는 없지만 중국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중국이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이고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중국어를 배워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중국어 선생님이시니까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던 거 같네요. 근데 제가 그때 중국어를 하다 말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만약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 질문 2) 저희를 보니 학창시절 때가 떠오르신다고 하셨는데 회장님이 기억하시는 보인고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김종구 선배님 보인고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잖아요? 또 사대문 안에 있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고향이 대전이어서 서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역사도 있고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고 지금은 좋은 후배들을 양성해 주고 있으므로 과거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룰 보인고가 더 인상 깊고 많이 자랑스롭습니다.

학생 질문 3) 대기 분야의 최고인 KNJ엔지니어링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김종구 선배님 사무실에 제 좌우명이 걸려 있어요. ‘큰 바다가 되려면 작은 것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것이 제 삶의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열정’ 그리고 ‘도덕’ 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도 열정을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류이지만 1등은 되지 못합니다. creation(창조), 창조하는 사람은 항상 비주류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열등감을 가져야 열정을 가지고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더라도 자신을 2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정을 갖고 창의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열정을 너무 갖게 되면 도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도한 열정으로 도덕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는 동시에 도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 : 어디에 속해있건 창조성을 갖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도 창의성과 도덕성을 함께 지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돌아가며 김중구 선배는 인터뷰



INTERVIEW

학생 질문 4) 저희가 KNJ 엔지니어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회사를 소개하실 때 '젊은 기업'이라고 소개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기업'을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닌 사고와 행동의 객관적 태도'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중구 선배님 젊은 기업이라는 것은 'young' 말 그대로 'so young'이라는 거죠. 젊다는 것은 좋잖아요? 회사는 항상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있습니다. 항상 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근시안적 사고방식'(market in a shell)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안주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의 장비 중에 오존 SO2 같은 장비가 있었죠? 과거에 이런 장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이걸 만들 수 있게 됐죠. 이제 우리는 이것만 외에 다른 것들도 만들어 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늘 창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생 질문 5) 해외의 다양한 cae하고 ecotech와 독점 체결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중구 선배님 환경 장비는 선진국형이고 장비 자체가 첨단장비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만들게 된 장비를 우리나라는 못 만드니까 수입을 해야 합니다. 제작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우리가 독점적으로 팔아야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동아오츠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포카리스웨트라는 음료를 허락을 받고 팔다가, 이제는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없어요. 대부분 먼저는 모방을 하다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더 선진의 기술을 만들어 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환경법이라는 게 있는데 WHO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5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인 PM은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그게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예요. 이걸 측정하는 장비를 만든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환경부에 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법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대기오염 공정 시험법입니다. 위에 말한 cae가 이 기계를 30~40년 전에 처음 만든 기업입니다. 그것을

제가 92년도에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대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제가 한화에서 5~6년 일하다가 차린 회사가 이 회사예요.

학생 질문 6) 회장님께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오셨는데, 혹시 추후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중구 선배님 다른 사업은 기존 사업은 유지를 하되, 새로 추가한다면 Source Identification와 관련된 분야를 해보고 싶네요. 이게 무엇이나면 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염물질 발생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발생원을 찾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해야 하고요.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당시에 환경공학과 관련된 직종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었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선두주자가 되고 앞서가는 사업을 해보고 싶네요.

학생 질문 7) 회장님은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중구 선배님 미세먼지가 원래 이제 황사가 왔다고 하죠? 황사가 사실 자연적으로는 이로운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같이 날아와서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수지 같은 곳에 녹조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황토를 뿌리잖아요? 과거에는 황사가 그 역할을 해주었어요. 자연적으로 녹조가 용화되어 없어졌죠. 물론 현재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잘 안됐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염도 발생하지만요. 이제 선진국들이 도쿄의정서 같은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살펴보면 과거에 선진국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이미 다 시켜놓고 이제 개발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제한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일을 해야해요

학생 질문 8) 회장님 말씀 하나하나에서 보인고를 아끼시는 마음이 가득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보인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김중구 선배님 지금 이 상태. 보인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다시 말하자면 남을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죠.

“Don't bother trying to be better than your contemporaries try to be better than yourself.” – William Flaukner

이 말처럼 여러분의 경쟁자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보다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보인고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인터뷰를 마지며

인터뷰 와중에도 계속해서 업무 관련 전화가 걸려옴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의 열정적인 답변과 우리에게 해주시는 조언을 듣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인터뷰 과정이 끝났다. 그리고 개인 사무실에서 교지편집부 부원들과 사진을 몇 컷 찍었다. 사무실에는 정말 많은 서류더미들이 쌓여져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선배님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님은 우리에게 직접 집필하신 책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와 KNU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만든 마스크 그리고 2달러를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책상에 쌓아 놓으신 간식거리에서 후배를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선배님의 연구실에도 들렀다. 큰 규모의 연구실에서는 많은 직원분들께서 대기 측정 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셨다. 그리고 한 곳에서는 고장 난 제품들을 직원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리하고 계셨는데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도 끝까지 제품에 대해 책임지는 이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선배님께서 우리에게 롯데월드타워에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셨다.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후배들에게 멋있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Boin High



School



김주경 선배님의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 기부

21128 조현준

“모교이자 평생 함께했던 보인고등학교가 자랑스럽고 손자보다도 더 어린 후배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어린 후배들이 모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평생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교육자 김주경(보인고 8회 졸업생,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 89세) 선배님께서 보인고에 1억 원의 멘토 장학금을 기부해주셨다. 김주경 선배님께서서는 1961년, 보인상업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보인중학교 교감과 교장, 보인상업고등학교 교장 등 25년간 보인 가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이후 200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6년간 보인고 재단인 대주학원의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후배 교사들에게 전달하며 뜻깊은 활동을 펼치셨다. 그리고 2020년 9월, 사범대를 진학할 후배들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해주셨다.



“일평생을 교사로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지요. 저처럼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교직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모교이자 평생 함께했던 보인고등학교가 자랑스럽고 손자보다도 더 어린 후배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어린 후배들이 모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라며 김주경 선배님께서서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당부의 말을 남기셨다.

김주경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 평생을 교육자로 헌신하신 선배님의 삶의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바른길로 이끄는 진정한 스승을 기르고자 하시는 선배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주경 선배님의 가족분들 또한 한 마음으로 기꺼이 후학 양성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 인상 깊었다.

지난 9월에 만들어진 ‘김주경 장학회’는 기부자의 기부 의도대로 사범대에 진학하여 교직자가 될 후배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인고등학교는 ‘김주경 장학회’를 포함하여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의 이름을 딴 여러 장학회가 운영 중이다. 김석한 이사장님을 비롯해 한 번에 1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 매년 일정액을 기부하는 동문도 여럿 있다. 학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한 뜻을 모으기 위한 보인고등학교 선배님들의 영향력 있는 발걸음이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



※ 보인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선배님들을 소개합니다!

1. 조병국 장학회

- 본교 9회 졸업생인 조병국 동문께서 설립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큰 꿈을 갖고 공부하려는 후배들에게 두루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장학금 일억 천만 원을 기부하셔서 설립된 장학회입니다.

2. 김영선 장학회

- 본교 14회 동문이신 김영선 동문께서 설립하셨습니다. 김영선 동문께서는 황해도 사리원 출신으로 6,25중 서울로 내려와 을지로에서 금속가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학금을 조성하시어 큰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일억 이백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3. 인평 장학회

- 인평 장학회 회장 박춘선님은 매년 천오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시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4. 신용환 장학회

- 신용환 장학회는 전 보인 총동문회 회장님이신 신용환 법인 감사님께서 본교에 매년 6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금까지 5천여만 원 기부하고 계십니다.

5. 신성장학문화재단

- 신성장학문화재단은 17회 동문이신 문정국 회장이 장학회를 구성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Boin High School

우리들의 글솜씨

2



짧은 친구 / 서윤덕

우리가 친구되어 나누었던
수많은 언어의 씨앗들이 지금 꽃을 피운다
함께 즐겁게 학교생활하며
나에게 해주었던 좋은 말 힘이 되었던 날들
생각할수록 고맙다
맑은 물 흐르는 냇가에
조약돌 같은 우리 이야기들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네가 있어 역경도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한다
친구야 우리 꼭 잡은 손 놓지 말자

Boin High School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부 합격 수기



30319 방승재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지역시스템 공학부에 합격한 방승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제 글을 필요로 하는 후배님을 위해 수시전형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만 할 조언들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보인고에서 3년 동안 지내으며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에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흔히들 과거의 내신 성적이 망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내신을 포기한 이유로 들곤 합니다. 허나,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신 성적 그 자체가 아닌 내신의 상승세입니다. 저 역시 제 내신의 상승세가 합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을 포기하게 되면 본인의 생각 한 구석에 '나는 정시파야'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서 자신의 기회(수능)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남들이 내신 공부를 하는 동안 놀게 됩니다. 내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고 수능공부는 남들과 같은 시간, 혹은 오히려 더 적은 시간을 하게 되는 셈이죠. 또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수능 범위에 내신 범위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신을 공부하며 수능 범위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수능을 공부할 때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성적이 망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셈치고 내신도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내신 성적이 수시전형으로 되돌아와 보험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시험을 괜히 여러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신을 챙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남은 시험이라도 잘 봐 두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이번엔 수시 전형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와서, 자소서를 쓸 때를 위한 팁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수시 전형의 가장 큰 복병은 자소서입니다. 처음에 자소서를 딱 잡게 되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자소서를 쓰려던 첫날 한 글자도 적지 못하고 '뭐 쓰지?'라는 질문만 곱씹어 보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못 먹어도 뛰어드는 불나방의 정신으로 웬만한 활동은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물론 참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그 활동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죠. 특히 보고서를 남기는 활동의 경우 그 활동의 내용을 꼭 이해하는 것이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나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많이 유리하겠죠. 본인이 정말 관심있게 보는 분야가 무엇인지 한 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전형의 꽃은 내신성적이겠죠. 앞서 제가 내신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험까지 잘 보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

다. 내신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과 학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가 원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비하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 되겠죠. 저는 이를 위해 기출문제를 꼭 풀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기출문제를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보는 과목의 문제만 풀지 마시고, 출제 선생님께서 내셨던 시험지를 꼭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기출문제를 풀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부한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전략 세우기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분명 후배님들 본인에게 맞는 공부방법, 수시 준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고3 말까지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공부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 파이팅!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합격 수기



30816 박지호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하게 된 박지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저의 내신 등급 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점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를 가기에 높은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크게 오른 수학 성적, 경시대회 수상, 성실함이 담긴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년간 느낀 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성적은 단일고사 성적이 아닙니다. 중간고사 복구 불가능이라고 생각해도 복구되고요, 100점이어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3학년 중간고사에 1.5정도의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얻은 등급은 2.0입니다. 또한 제 주변에는 그 반대 케이스의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하죠. 그러나 전자를 맞본 학생은 앞으로 무너지지 않습

니다. 역전의 경험은 뇌리에 깊게 박히고 공부 지속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느낌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3학년 내신 준비에 꿀팁을 드리자면 학원보다는 개인 공부, 시중의 여러 문제집보다는 수능특강과 기출문제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시대회 수상경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2학년 때에 상을 못 받았던 친구들은 꼭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내신을 커버하고 높은 내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경시대회 수상입니다. 저 또한 엄청 높지 않은 내신을 커버한 것이 수학 경시대회 대상과 국어 경시대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대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시대회 상이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증명하기에 어찌면 내신 급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시스템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소소한 조언을 하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자신의 평상시 수업 중 성실한 노력 100%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뿌린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수시 올린이야, 나는 정시 올린이야!'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내신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은 현재 내신이 안좋아도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내신 공부를 지속하세요. 그러나 노력할 마음이 부족하고 남들 내신공부하니까 성적이 안돼도 그냥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수시보다 정시에 진정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수시도 챙겨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학업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무조건 남들 내신 공부할 때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하세요. 남들보다 세 달에 가까운 공부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할 때 지치지 않는 팁을 드리자면 50분 공부, 10분 원하는 휴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치지 않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배들의 잘한 점을 수렴하고 못한 점은 배제하며 많은 조언과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특목고와 일반고의 생기부 불균형 문제가 완화된 점과 약대 부활로 인한 이과 한정 조금 더 수월해진 정시가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 수기



31112 박현찬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논술전형에 합격한 박현찬입니다. 힘든 수험 생활로 고민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씁니다.

제 1학년, 2학년 때의 학습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목표의식과 흥미의 부재, 2학년 때의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방과 후엔 운동하거나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합리화하는 르상티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모두 핑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 6월 이후에야 로스쿨을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쩌면 그때 허무하게 보냈던 시간이 거름이 되어 6개월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늦었다 생각하며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보낼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1,2학년 때에는 성적을 잘 받고는 싶고 공부는 하기 싫은 심리적 괴리감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내신]

제 내신은 좋지 않았지만, 내신을 아예 버리기보다는 주요과목은 챙기면서 수능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내신 기간에 몰입해서 공부한 경험이 상당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내신을 일찌감치 버리면 '나는 수능으로 갈건데 뭘' 하는 안도감으로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저는 수능을 위주로 공부해왔습니다. 1학년 때 첫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수학 모두 3등급이었고 그 이후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 느낀 바로는 국어는 기출 공부와 사실 지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기출을 3번, 4번 본 후 6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사설만 봤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봐야 합니다. 수학이 제일 싫었고,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이었는데 열심히 하다보니 3학년 중반 즈음에는 가장 자신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주요과목과 달리 탐구과목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과목 못지 않게 입시에서 비중이 크니 열심히 챙겼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당일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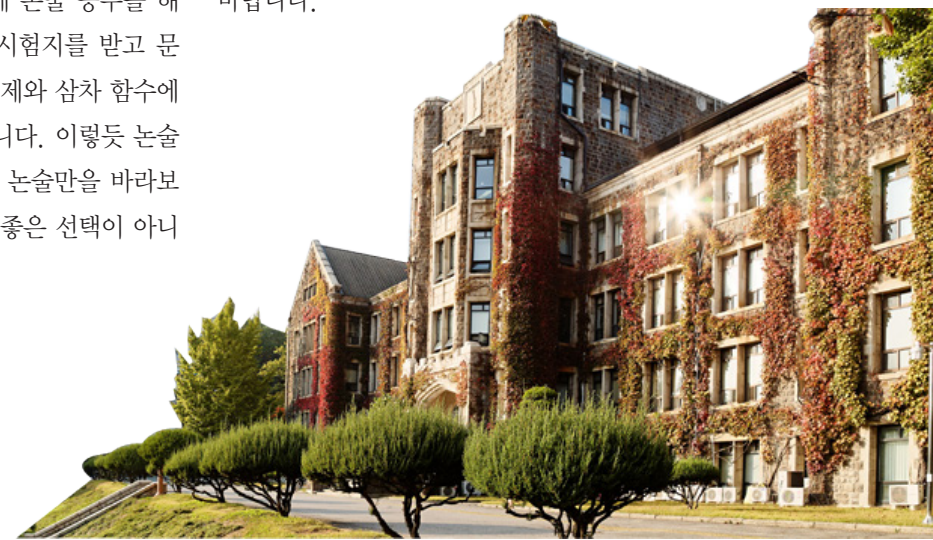
[논술]

저는 논술로 대학에 합격했지만, 수능 전에 논술 공부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봤을 때 운이 좋게도 제가 알고 있는 주제와 삼차 함수에 대해 문제가 나와서 자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논술은 누가 붙을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도, 논술을 아예 등지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써내려가야 합니다. 저도 중간에 몇 번씩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무리는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써내려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폭넓은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을 바라보고 공부하던 친구가 정시로 대학을 입학하기도, 저같이 그 반대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학입시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국어고 수학과고 모두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들입니다. 1년 2년이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공부 환경에 많은 학생들이 우울하고 힘들텐데 그럼에도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이 멋집니다.

'세컨드 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도저히 힘들고 지쳐서 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올라가고 정신도 차분해지며 공부가 잘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세컨드 윈드라 합니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긴 수험 생활로 마음이 지칠 때, 그 때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것만이 극복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공부를 마치고, 차가운 밤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다는 만족감으로 하루하루를 위안삼으며 힘든 수험생활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합격 수기



30813 모현

1월과 다가오는 2월, 이제 고3이 될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만들 시기입니다. 대학입시는 큰 고비에서 느껴지는 부담감, 그렇다고 이를 해소할 수도 없는 현재 상황 때문에 난감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긴장하면서 올 한해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알맞게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과정을 돌아해보아도 상황이 좋지않은 않았습니다. 공부와 함께 재활을 병행해야 했고, 다양한 활동들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상황이 개선되다 보니 공부에 쏟을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제가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공부 이외의 것들이 주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즐거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전형에 있어서 미리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느 학년에 있든지 수시를 쓰게 된다면 생기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에 반영이 되면 좋고, 진로 활동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반영되면 좋습니다.

당연하게도 내신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학교별로 표준편차가 반영된 z점수를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도중에 못봤다고 좌절하지 않고 다음 학기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술 역시도 내신이 감점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를 쓸 생각이 있다면 학교 시험을 던지지 않고 집중해서 치러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관해서 몇몇 사람들이 3학년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까지 유지된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렇게 공감아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능은 각 과목별로 시험문제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계속 풀어나가게 되면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면서 소요시간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성적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해당 과목에 대해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초반 모의고사를 잘 못봤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1, 2학년 모의고사와 3학년 모의고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잘봤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시중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고, 인강이 몸에 맞는 사람들은 인강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3학년 담당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수업시간에 짚어주시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힘이 되준 가족들과 친구들, 저를 연세대학교로 이끌어주신 보인고등학교 선생님들, 등하교를 도와주시면서 저를 응원해주신 김용호 축구부 코치님, 고3 1년 동안 저를 잘 케어해주셨던 김웅천 담임선생님까지.... 저는 사람 복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들더라도 재밌게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일장
1학년
운문 부문
장원

3417

10731 황산하

청소년 두 명이요
 즐거운 고난 후 버스에 올랐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다
 직장생활이 고단하지만
 휴대폰 배경화면에 어린 딸내미를 보고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양손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쪽잠을 청하며
 한시름 내려놓는 누군가의 어머니
 여태 학원에서 공부하고
 버스에서의 자투리 시간에
 단어장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아들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누군가의 딸
 난 아직 그 고난을 모른다
 아직 우리는 철이 없다
 정차벨이 울렸다



백일장
1학년
운문 부문
장원

나에게로의 달리기



20313 이재원

달린다는 것
 두 다리로 이 굳센 강토를
 휘달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달린다는 것
 두 팔을 내저으며 심 없이
 땀 흘리며 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빛난다

달린다는 것이
 무엇이였는지 잊고 살 때가 많다
 빼격거려 재만 부스스 나오는 내 몸과

달린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만듯한 내 가슴에선
 줌처럼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개를 조금 돌려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내 사람들 모두
 자신의 빛에 다다르기 위해 열심히 뛰는데

나 홀로 스스로를 구속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나태에서 오는건가 깊은 두려움에서 오는가

나도 한 때는
 두려움없이 진한 땀 방울방울 흘리며
 내달린 적 있었지만

늦게 찾아온 공허와
 불현듯 스며온 공포로
 이젠 내가 뭘 적은 있었던가 되물게 된다

나이 열여덟이면
 살 날도 많고 살아온 날도 많은데
 내 달리기는 힘이 없다

그저 허공에 허우적대며
 녹슨 다리로 빼격거릴 뿐
 달리는 법을 잊었다

그러나 이대로 눈을 감고
 달리는 것을 멈출수는 없다
 엄습한 미래의 두려움은 멈춤에서 비롯되며

전보다 더 굳세게
 빠르기보다 느리고 길게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스스로를 구속하여 멈추는 것과
 길을 모르더라도 일단 달리는것의 차이는
 몇 계절을 거뜬한 어느 날에 드러나게된다

멈춘것을 하염없이 기다리지않고
 멈추기를 거부하고 뛰려한다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날이다

백일장
2학년
산문 부문
장원

단풍을 피해

20717 손현준

“나는 다음에 꼭 산이 될거여.”

평생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이씨가 늘상 하던 이야기이다. 교통사고로 2개월 판정을 받은 나와 달리 이씨는 퇴직 후 거의 7개월을 병원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았으나 그의 말에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는 듯한 그의 시선이 담겨있다. 말동무가 되어준 이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전쟁 후 돌아오니 자식 한 명이 죽은 것,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있던 논밭을 판 것, 경비가 된 후 병이 생겼음에도 하나 남은 자식에게 손벌리기 싫어 방치한 것, 3번째 수술이 끝나고 그는 무엇인가 직감한 듯 산을 보고 있는 일이 잦아졌다. 자식이 문안을 왔다간 날 밤, 그는 나에게 문득 말했다.

“산보다는 단풍이 나올 것 같구먼.”

“단풍은 1년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산은 오래오래 있고요.”

“산은 너무 멀리 보여.”

“바로 앞만 볼 수 있는 단풍보다는 나온 것 같은데요.”

나는 산이 되고 싶다는 그의 의견에 늘 동조해 온 터라 갑작스러운 의견 변화에 약간 오기가 생겨 대답했다. 그는 구름진 그의 얼굴로 빙그레 웃음짓고 창 밖을 보았다. 그날 밤, 그의 마지막 숨이 빠져나간 이후 퇴원할 때가 되었다. 문득 그의 시야

에서 보던 창 밖의 풍경이 궁금해져 그가 눕던 침대에 누워보았다. 창 밖은 산이 절반, 산 옆의 읍내가 절반 보였다. 겨우 2개월 남짓 누워있던 내가 죽기 전 6개월을 사고하며 보낸 그의 철학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병원을 나오며 험떡거리며 달려오는 그의 자식이 보였다.

“저기요, A씨 맞으세요?”

불러오는 내 이름에 문득 나는 돌아보았다.

“네, 맞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내민 그 손에는 내가 처음 올 때 가져온 단풍 책갈피가 들려있었다. 그가 단풍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은 단순히 삶의 길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라 생각하던 나는 그가 인생 마지막을 벗으로 보낸 나와의 인연을 소중히 했음을 깨닫고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웃음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고 나는 낙엽을 피해 걸었다. 그와 그가 소중히 여긴 것을 기리며 걸었다.



백일장
1학년
산문 부문
장원

고향

11012 손세훈



“오 분 정도 남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한다.

나는 창문을 열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본다. 바람이 구름을 비단처럼 짜 만든 가을 하늘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나는 유년 시절의 가을을 떠올린다. 우리 집 마당에 피던 코스모스 모습과 가을의 꼬트머리에 붉게 변하던 낙엽이 내 머리 속으로 떨어진다. 불현듯 어머니의 말 씀이 떠오른다.

“애, 우리 마을도 곧 개발된단다.”

“개발이요?”

“응, 공장도 생기구, 아파트도 들어오구……. 어머니, 느낌이?”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뿡- 하는 기차 소리가 들린다. 택시가 마을 입구를 지나친다.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는 글자가 써 있던 장승은 이제 글자가 보이지도 않는다. 십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색도 바랜 것 같다. 택시가 마을 안으로 들어선다. 보지 못한 건물들이 시야를 막는다.

“여기는 공장 건물 뿐인데, 뭐 하러 갑쇼?”

“저의 고향입니다. 근 십오 년 만이죠.”

“과거에 비하면 펍 변했을 것인디…….”

“…….”

특별한 것 없는 마을이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했기에 나에게겐 특별했다.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추억이 보이는 나의 고향. 나의 기억 속 나의 고향은 소중한

다. 하지만 개발되고 발전된 마을을 보며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려 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내가 무언가를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택시에 내려서 걸으며 예전 나의 집으로 간다. 흙이 밟히던 땅에는 이제 벽돌이 밟힌다. 넓었던 마당에는 차가 들어서 있다. 빼격거리던 나무 문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철문이 있다. 올라갈 수도 있었던 지붕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 이걸 發展발전이 아니라 發癲발전이 아닌가? 갑작스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나는 비틀대다 벽에 몸을 기댄다. 바닥에는 애처롭게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라나다 비틀린 민들레가 눈에 들어온다. 아! 저기에 나의 추억이 있구나. 밭과 들과 산에 만발했던 나의 추억은 이제 발전이라는 이름의 보도블록 속에 갇혀 있구나! 나는 다급한 마음이 들어 마을을 뛰어다닌다. 하지만 나의 추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나는 또다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곳에서는 높은 건물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또다시 된다. 제일 높은 뒷산으로 간다. 산을 오르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상에 이르러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이 완전히 보인다. 아! 저기 나의 추억이 있다. 갈색, 붉은 색, 노란 색으로 노을이 진 가을 하늘에는 갈색 단풍이, 붉은 코스모스가, 노란 민들레가 보인다. 바람이 추억을 비단처럼 짜 만든 가을 하늘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경제
보고서 대회
우수작

바우처 제도의 경제적 이해와 새로운 복지정책 대안

30914 신정환

1. 서론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활동이 위축 되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화, 자동화의 확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의 확대는 사회적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RCY 동아리 활동과 노인 급식봉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로 다양한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제도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바우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제도를 부정하게 악용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이 탐구를 통해 바우처 제도의 개념,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제도의 이론적 이해와 기대효과,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와 문제점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교과수업, 수행활동 등을 통해 탐구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사회복지제도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도와 바우처 등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바우처 제도의 개요

바우처(Voucher)는 공공정책 수단으로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주어지며, 정해진 재화나 서비스를 정해진 공급자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측면의 수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소비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2. 바우처 제도의 이론적 이해

① 보조금의 종류와 소비자의 선택

사회 저소득층을 돕는 방법으로는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등이 있다. 현금 보조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구매력을 증대시켜주는 것으로, 수혜자의 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지급자의 의도와 달리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현물 보조는 재화나 서비스를 현물로 보조하는 것으로, 당초 지원항목 이외에 다른 의도로 사용방지가 가능하나 현물을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가격 보조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시 가격을 할인하는 것으로, 지급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나, 수혜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수단이다. 소비자 후생의 측면만 놓고 보면 현금 보조 > 현물 보조 > 가격 보조 순으로 수혜자에게 만족을 준다. 하지만, 특정 재화를 정해놓고 이에 대한 수요를 늘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면 가격 보조 > 현물 보조 > 현금 보조 순으로 효과가 크다.

② 바우처 제도의 이론적 이해

정해진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바우처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개별 수혜자들의 예산제약을 어느 정도의 제한성을 가지고 완화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현금을 지급한다면 소비자의 예산이 증가하므로 예산선이 오른쪽 위로 평행이동하여 AB에서 A'B'으로 이동한다. 반면, 특정 재화인 식료품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하여 식료품 바우처 10단위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예산선 AA'에서 오른쪽(식료품)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한 B'B'의 예산선이 나타난다. 바우처를 지급한 경우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소비점의 영역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ABB' 영역에서도 소비자가 소비점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넓은 범위에서 소비점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우처의 지급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예산제약을 제한성을 가지고 완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지원계층에게 정해진 재화나 서비스의 최소한의 기본 소비량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복지적 관점에서 바우처 제도의 목적이다. <그림 2>와 같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예산선은 오른쪽 위로 이동하고 소비 균형점은 B''이다. 한편, 식료품 바우처를 지급했을 때는 예산선이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게 되고, 소비 균형점은 B'''이다. 이때 소비자 후생은 현금을 지급했을 때(U2)가 식료품 바우처를 지급했을 때(U1)보다 크다. 하지만, 식료품의 구매량은 바우처를 지급했을 때의 B'''점에서 더 크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권장하는 재화나 서비스 소비를 늘리게 된다.

3.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바우처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8종 사업이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바

우체 제도는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한다. 바우처 제도는 기능별로는 보호·돌봄, 건강·의료, 교육·직업훈련, 문화·여가, 재화구매 등으로 나뉘고, 용도별로는 돌봄 등 대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재정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과 같은 재화에 대한 구매 대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원별로는 중앙 및 지방 재정사업, 사회보험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공급측면에서는 할당에 의해 선정된 독점적인 공급자의 고객유치 활동이 미흡하여 수혜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는 수혜자의 선택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셋째, 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과 요금, 서비스 수준 등에 있어 불평등한 요인이 존재한다. 넷째, 예산 측면에서는 본인 부담액이 있는 경우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고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생한다. 다섯째, 수혜자가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거나 공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정사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정사용 등의 규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제도 운영이 되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이동과 사람간 접촉의 제한 등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시에는 바우처 제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바우처 제도의 개선과 리모델링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III. 새로운 정책 대안 :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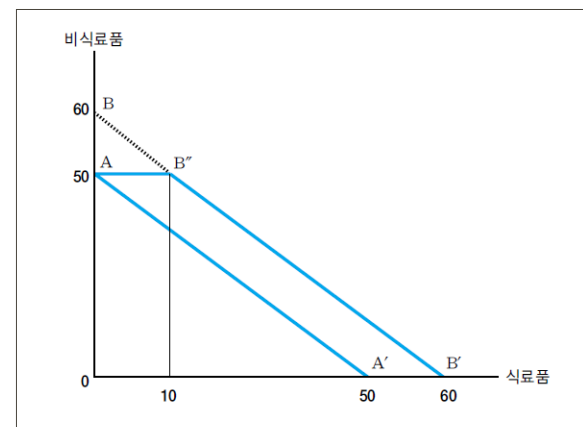
Covid-19의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AI 등에 의한 노동의 대체로

사회 계층간 부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는 사회적 모순에 적극 대응하고자 논의 되었던 기본소득제도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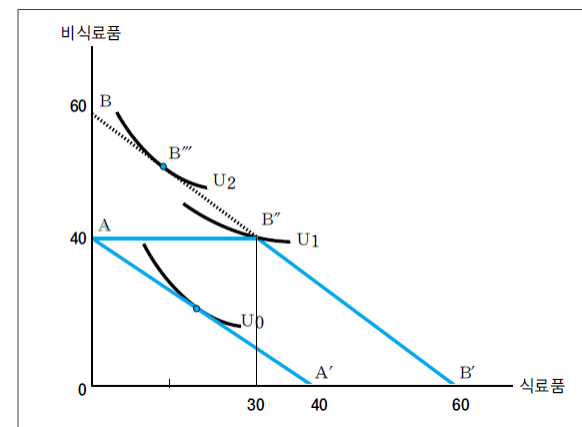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현금 급여를 매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보험 등 보장제도와 차이점은 소득이나 재산심사나 노동의무 요구 등 조건이 없는 무조건성에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일을 안하고 돈만 받는다면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의 평균 수입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한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인 '음의 소득세'를 지지한다. 반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의 출현은 사회안전망의 재편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갈수록 커지는 소수에 집중되는 부와 기술혁신에 따른 성장의 혜택을 나누어 먹지 못하는 99%를 위한 대안적 복지제도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교과 수행활동과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읽고 탐구한 기본소득제도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만능제도라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중 하나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보완책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재원의 조달 문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바람직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1 : 바우처의 제한적인 구매력 지원>



<그림 2 : 복지적 관점에서의 바우처의 효과>



경제
보고서 대회
우수작

기준금리와 주요 경제 지표와 관계 연구

31123 이윤성

1. 기준금리의 이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세계 경기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 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OECD 회원국 중 최근 13개국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였는데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3%를 기록하였다. (출처 '20.8.2일 연합뉴스)

*미국 -9.5%, 독일 -10.1%,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등

우리나라 6월 실업률 또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6년 6월 이래 최악의 수준인 4.3%이며 실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만1000명이 늘어난 122만8000명으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출처 '20.7.27일 헤럴드경제신문) 수출은 지난 4월 25.5% 감소를 보인 이후 7월에는 7%를 감소하는 등 감소폭은 둔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면 코스피와 부동산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반대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상초유의 저금리 영향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높아져 갈 곳을 잃은 돈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국고채금리, 주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로서 기준금리 변동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 통화량을 줄여 경기를 진정시키면,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내려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준금리 역할〉

상황	기준금리 정책	효과	결과
경기 과열	올림	통화량 축소	경기 진정
경기 침체	내림	통화량 확대	경기 진작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춘 결과 현재 0.5% 수준으로 우리는 지금 사상 최저 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2. 기준금리와 주요 경제지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며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제 지표로는 금리, 물가, 환율, 주가, 부동산 가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금리, 주가, 부동산가격과 통화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준금리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금리는 국고채금리와 금융기관 예금금리로 세분화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살고있는 송파구 아파트 가격 지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경제지표의 데이터 수집 계획〉

- 데이터 수집 출처
 - 기준금리, 통화량, 금융기관 예금금리: 한국은행 홈페이지
 - 국고채3년금리, 주가지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송파구 아파트 가격 지수: 한국감정원 빅데이터
- 데이터 수집 기간: '16.7월~'20.5월

분석방법은 담당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엑셀을 이용하여 주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래프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부석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분석〉

- 상관관계분석 정의(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수학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거나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인정하는 두 변량(變量) 사이의 통계적 관계.
- 상관관계 엑셀식:상관계수(R)=CORREL(A0:A00,B0:B00)
 - R값은 -1이 최소 1이 최대, 1이면 완전하게 똑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며
 - 1이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임.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기준금리	통화량	국고채	예금금리	코스피	송파구 아파트
기준금리		-0.29177282	0.51049207	0.861750739	0.037428667	-0.16210057
통화량			-0.2335791	0.017257498	0.15365405	0.947104105
국고채				0.684069921	0.674633292	-0.04514788
예금금리					0.23864326	0.183752647
코스피						0.231971174

(1) 기준금리 vs 통화량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증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엑셀을 활용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실제 마이너스로 나왔으나 -0.29로 관련성은 높지 않았음.

(2) 기준금리 vs 국고채 vs 예금금리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국고채와 예금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특히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의 상관계수는 0.86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음. 국고채와 예금금리 상관계수 또한 0.68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음.

(3) 기준금리 vs 코스피지수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으로 갈 자금이 은행으로 가며,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가 내려가서 은행예금으로 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니 0.037로서 기준금리와 코스피 지수는 서로 상관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국고채와 코스피지수는 예상과 달라 상관계수가 0.67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4) 통화량 vs 송파구 아파트

통화량과 송파구 아파트의 상관계수는 0.947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왔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시중이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통화량과 아파트가격과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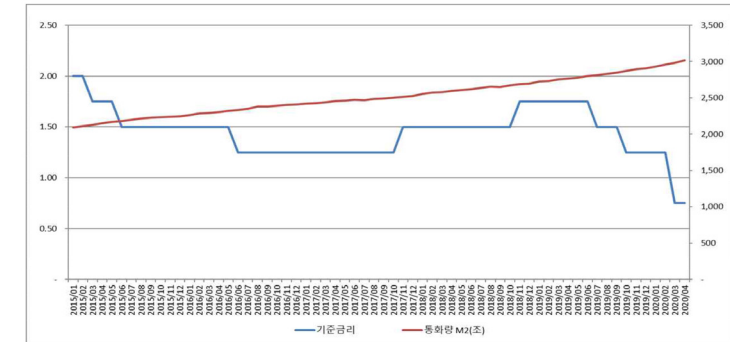
4. 시사점 및 제언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아파트값 폭등과 안정화 대책과 연관시켜 보면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흘러 넘치는 유동성 자금(통화량)을 건전한 산업현장으로 흘러가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2020.8.5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3%의 수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160조 뉴딜 펀드를 조성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여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정책(K-뉴딜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가 경제도 재건되고 부동산 가격도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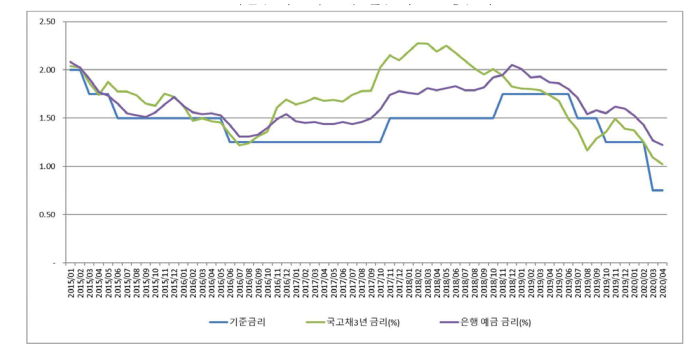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뉴딜펀드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필요하며 전국민의 동참을 위해 3% 수익도 좋지만 이자소득(투자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병행하면 정책의 연착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주요경제지표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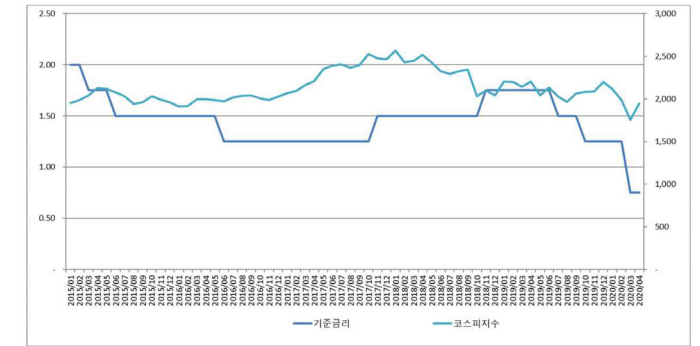
기준금리 vs 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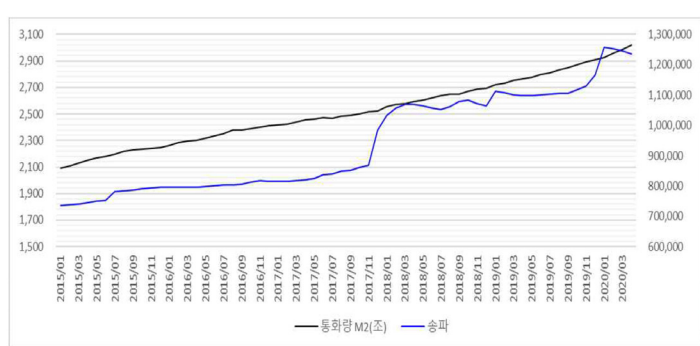
기준금리 vs 국고채3년금리 vs 은행금리



기준금리 vs 코스피지수



통화량 vs 부동산가격



금상

2020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우수자 수기 공모 대회 우수 작품

20503 김두경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자습을 진행하여 1학년 때의 학습 분위기와 차이가 있었다. 처음으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청강하면서 그에 대한 복습과 예습을 혼자서 직접 하는, 말 그대로의 자기주도학습을 시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물론 이전에도 학원과 학교를 오가기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수업시간과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시행 하였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어 1학년 때보다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줄어든 이동 시간으로 절약된 시간, 쉬는 시간을 활용하며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자기주도학습을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 바로 복습을 진행하였고,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졸음이 올 때는 집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스트레칭을 하거나 방안을 거닐며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중을 방해 할 여러 유혹들이 있었지만 뿌리치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정해놓지 않은 쉬는 시간을 자제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제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 뿐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필요한 덕목이기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닦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고 키우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기반이 되어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암기 과목을 비롯한 모든 과목에서 성적향상을 이루었고, 특히 노력과 정성을 깃들인

수학과 물리 과목에서 더 많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눈으로 보며 읽고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명을 하면서 몇 번 더 복습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동적으로 개념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하면서 이해한 부분 및 미흡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미흡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소리 내어 말하기를 더함으로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도 얻어낼 수 있었다. 암기과목은 물론이고 수학과 물리에서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문제를 품과 동시에 육성으로 개념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이 집이라는 공간 덕분에 가능케 되어,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수학, 물리과목의 실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실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내어 상황을 이겨내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만이 아닌 앞으로의 학업에 있어 일어날 여러 문제들에 있어 이번에 찾아낸 방법 뿐 아니라 유연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실행할 역량을 지니게 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금상

2020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우수자 수기 공모 대회 우수 작품

10807 김선우

나의 자기주도학습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먼저 한 달을 기준으로 일주일, 하루 단위로 세분화했다. 한 달 계획표에는 과목별로 풀 문제집의 개수, 목표 등급을 기록하고 주 단위 계획표에는 일주일 동안 끝낼 공부량을 정했다. 그 뒤 분량을 나누어 요일별로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자세히 기록했다. 꼼꼼한 계획을 통해 내가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실감하고, 그날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체크하며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다. 시행착오를 거친 공부패턴을 반복하면서 나만의 공부 습관이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자기주도학습에서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은 일주일 100시간 공부법이다. 이는 시험기간 2주전부터 하는 공부법인데, 말 그대로 일주일 공부시간을 100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과 더불어 평소 잠깐이나마 흘려보냈던 시간까지도 모두 공부에 투자해야만 했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도 공부를 해야 했으니 사실상 100시간을 온전히 채우고 집중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단순히 100시간을 채웠다는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며 양질의 공부를 했는지 항상 나 스스로의 피드백도 잊지 않았다.

수학은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제집을 많이 풀어 경험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시험 당 수학문제집 7권을 목표로 잡았으며, 일주일에 1권에서 2권을 풀었다. 이후에는 틀린 문제들을 오답노트에 다시 풀어 부족한 유형을 보완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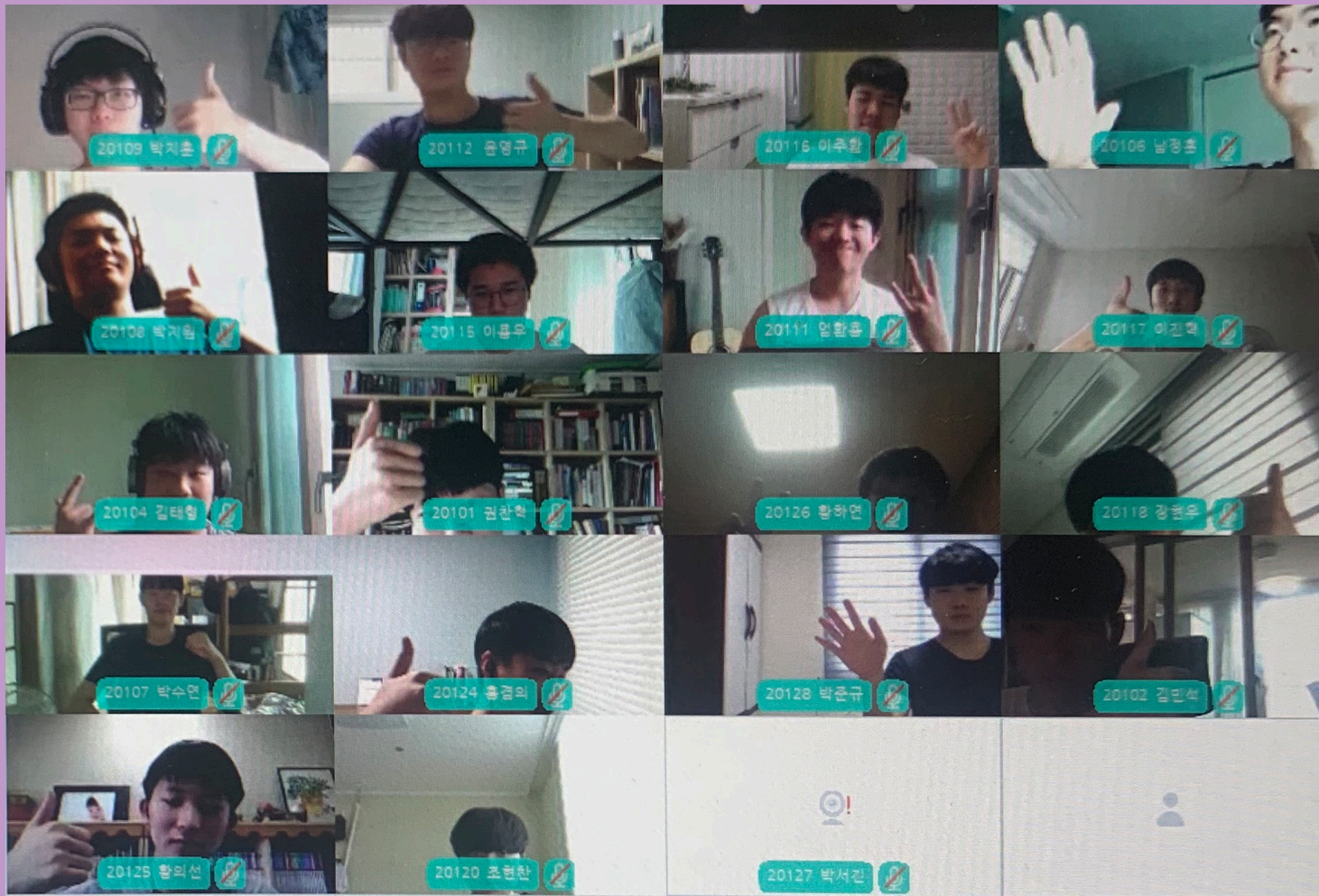
다. 국어는 수업 시간의 필기를 빠짐없이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법은 노트정리를 통해 암기하였으며, 문학은 시대적 배경, 형식적 특징 등에 중점을 두어가며 문제풀이보다는 반복읽기에 중점을 두었다. 영어는 학원 과제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본문암기가 되도록 하였다. 과학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여러 배경지식과 결부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의 심화 내용을 찾아보며 지적호기심을 채움과 동시에 주요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회와 역사 과목은 정독 10독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중학교 시절부터 사용한 방법으로, 시간을 재며 빠지는 글자 없이 10번을 정독하는 방법인데, 노트정리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주도의 핵심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사례들을 보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가 계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약속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계획 없이 그날 그날하던 예전과 달리 꼼꼼한 계획과 실천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중간 기말 세 번의 시험을 보면서 목표로 한 등급까지의 를 얻지 못했고 순간 낙담하며 포기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계획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들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Boin High School

기획 코너 3



뿌리의 힘 / 나태주

쓰러진 꽃도
함부로 밟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이 필 때까지
꽃이 질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 꽃 한송이 피우기 위해
뿌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즐기와 이파리는 또

얼마나 울고 불며
매달리고 달래며
그랬을 것이냐

우리는 비록 몰라도
아주는 모른다 해서
안 되는 일이다.

Boin High School

BTS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10215 안성진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수많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이 시대에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 즉 BTS가 K-POP을 대표할 만한 자리까지 오르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진정성 있는 메시지'다. 방탄소년단은 다른 케이팝 그룹들과 달리, 기획사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니라 각자 '아티스트'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추고 있다.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방식은 방탄소년단을 조직할 때 각자의 재능과 실력을 갖춘 7명의 멤버를 모았고, 첫 번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만을 하였으며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탄소년단 내면의 이야기가 되길 바랐다고한다. 덕분에 멤버들은 즐겁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멤버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꿈, 방황에 대한 주제로 곡을 썼다. 결국 그들의 음악은 사춘기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며 큰 힘을 주게 되었고, 팬들과 아티스트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평범한 케이팝 그룹과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빌보드닷컴은 "대부분의 케이팝 그룹들은 그들의 음악을 정치화하거나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데 주저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여러 차례 정신건강, 왕따, 자살 등 정치와 문화적 문제를 다뤘다. 이런 비전형적인 접근 방식이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높였다."라며 방탄소년단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는 바로 '아미(Army)'라고 불리는 두터운 팬층이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을 당시 대형 기획사들의 프로모션에 밀려 활동 기회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던 그들은 인지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SNS를 선택하였고, 일상적인 모습들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전략은 팬덤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팬들은 멤버들의 일상을 보며 인간미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방탄소년단의 유명세가 SNS를 통해 해외로도 빠르게 퍼져나가며 방탄소년단의 매력에 빠진 아미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 방탄소년단 또한 전 세계의 아미에게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며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높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멋진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 또한 그들의 성공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뷔는 각각 미국 매체에서 "2020년 가장 섹시한 인터내셔널 남성", "2019 Best Face 100"의 1위에 선정되며 '미'의 기준을 재정의한 세기의 미남으로 평가되고 있다. 뷔와 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멤버들도 각자의 개성 있는 외모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또한 '칼군무'로 유명인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된 춤실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신곡이 나올 때마다 난이도 있는 춤들을 소화하며 임팩트 있는 안무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방탄소년단의 매력에 빠진 팬들이 많아졌다.

2013년에 데뷔하여 2017년 노래 'DNA'로 빌보드 차트에 입성하여 1위를 달성하였고 현재 신곡 'Dynamite', 'Life Goes On', 'Savage Love'를 발매하며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들의 성공은 재능, 노력, 전략의 3박자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K-POP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민식이법, 양법인가 악법인가?

10306 김중현

요즘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얼마 전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있었다. 바로 민식이법인데, 필자는 이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하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
- ▲(우)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 5항)

민식이법 위반 시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부딪혀 가해자가 될 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것이다.

이렇듯 민식이법은 과잉처벌, 흑형 논란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현대적 법리에 어긋난다는 것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일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이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오는 차에 뛰어드는 척을 하거나 부딪치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반대 여론이 더 거센 것으로 보이는 민식이법의 악용에 대비하여 피해 예방 법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민식이법에 대비한 행동 요령이다.

1. 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

사실 민식이법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과정을 포함한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 그리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100명 이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상시 켜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몇몇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3. 10km/h 미만으로 감속한다.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도 사각지대나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고, 만약 어린이와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아야 운전자의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로에 사람이 있다면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닌다.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위법의 여지조차 없다. 하지만 이 경우 대중교통의 운전기사는 여전히 위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의 방법들만 봐도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한없이 조심해야 하고, 운전자들이 왜 민식이법에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 보인고 학생 여러분들은 이 민식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짜뉴스의 습격, 원인과 대처법은?

10701 강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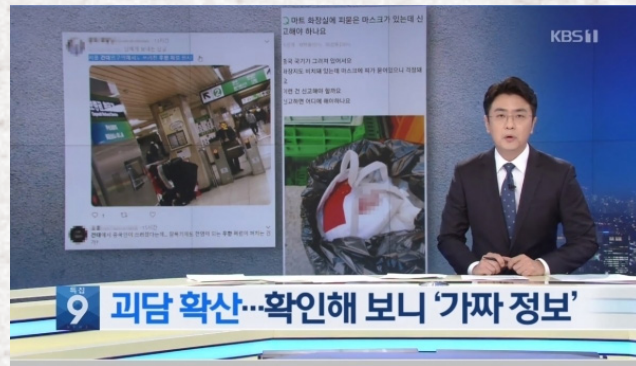
‘오늘 하루 동안 쓴 일회용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거나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면 살균 효과가 있어서 내일 또 써도 된다.’ ‘oo동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앰블런스에 실려 갔다. 코로나 확진자임이 틀림없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죽어서 안전하다’ 위 세 가지 내용들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동안 세간에 떠돌아 다닌 대표적인 가짜뉴스들이다. 가짜뉴스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닌 모든 거짓 정보들을 총칭한다. 가짜뉴스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8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소요사태가 있었다.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위해 거리에 나섰고, 그들 중 일부가 고가 상품 매장에서 상품을 훔쳐 달아났다. 하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고 알려진 흑인 청년은 병원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다수의 시위대는 가짜뉴스에 속아 시간낭비를 했고, 일부는 절도범죄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문제가 왜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고,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짜뉴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방송, 라디오뿐만 아니라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매체들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보화의 산물인 인터넷과 SNS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이 가짜뉴스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누군가 정보를 유포해도 그 정보가 유력한 신문 또는 방송매체에 보도되지 않는 한 널리 퍼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시 봉쇄조치와 전화선 차단, 그리고 언론 보도 통제로 인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한동안 타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못했다. 반면, 2019년에 시작된 홍콩 시위의 경우, SNS에 현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전 세계에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위 사례는 정보 공유 속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빨라졌음을 보여주고, 정보 속에 섞여있는 가짜뉴스 또한 단기간에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짜뉴스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어떤 뉴스를 볼 때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여기서 비판적인 사고란, 내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편집자가 글이나 영상물에서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지,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지, 활용한 사례나 정보들의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등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평소에도 매체를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한 번씩 의심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무조건적인 의심으로 인해 ‘이 세상의 정보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당한 의심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은 우리가 교묘한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이다.

두 번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나 영상물을 볼 때, 단순히 제목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일명 ‘제목 낚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 기자, 블로거,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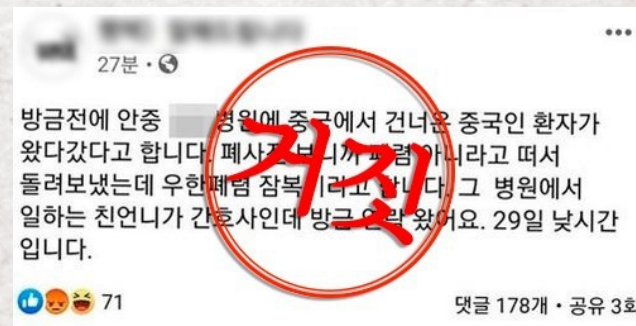


버 등의 사람들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나 영상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제 내용보다 자극적이고 이목을 끌만한 제목과 섬네일(인터넷 홈페이지나 동영상 같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을 만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목이나 섬네일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것은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억측에 사로잡혀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가

짜뉴스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제목만 보기보다는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차검증'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었다면, 그 정보를 다른 매체들(신문, 방송, 라디오, 타 SNS 플랫폼 등)도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교차검증 과정 없이 유튜브 영상에서 얻은 정보들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영상 제작자에 의해 유포된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유튜브 채널만 시청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부정확한 정보들, 혹은 채널 편집자의 개인적 의견이 녹아들어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접하게 된다. 이 사람 역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며 유튜브를 통해 얻은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들을 접할 때도 똑같이 유념해야 한다. 본인이 접한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 여러 매체를 통해 검증해보며 가짜뉴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정보의 홍수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짜뉴스의 위협이 날이 거세지고 있다. 많은 주류 언론사들이 팩트체크(fact-check)라고 불리는 보도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의 수가 너무 많고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가짜뉴스 대처법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한다면, 가짜뉴스에 속을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 모두가 위 대처법을 통해 가짜뉴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머니볼, 불공정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10624 정지성

야구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리그에서 가난한 구단은 어쩔 수 없는 패널티를 받는다. 그들은 몸값이 오른 선수의 연봉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팀의 주축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보내기도 하고, FA(자유계약선수)로 풀린 30홈런-100타점의 야수를 사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야구는 현실 순'이 되지는 않는다. 가난한 구단에게도 매년 있는 드래프트와 트레이드를 통해 좋은 선수를 영입할 기회가 있다. 다만 이미 타율, 타점 등의 전통적 기록이 좋은 선수는 부유한 구단의 차지이므로 실제 능력보다 저평가 받고 저렴한 선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2002년의 오클랜드는 이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들은 2002년 시즌에 아메리칸리그 역사상 최다 연승인 20연승을 포함해 통합 103승을 거두어 서부 리그 1위에 올랐다. 당시 오클랜드가 사용했던 야구 경영론을 흔히 '머니볼'이라 부른다. 머니볼은 가능한 적은 투자로 높은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의 이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자.

① 단장 '빌리 빈'의 노력

빌리 빈은 기본적으로 웅변가였다. 선수를 트레이드 해올 때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능력도 탁월하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남을 설득할 줄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선수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때문에 그는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인가'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빌 제임스의 <야구 개론> 등을 읽고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던 '야구를 분석하려는 움직임'에도 동참하였고 야구를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방법론인 '세이버메트릭스'를 일찍이 이용하였다. '총득점과 승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거나 '야구에선 수비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등 여러 가설을 세우고 그가 고용한 '폴 디포디스타' 부단장과 함께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② 프런트 '폴 디포디스타'의 분석

폴은 빌리 빈에게 고용 받아 흔히 '세이버메트릭스'로 불리는 야구 통계를 연구한 인물이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출루율의 재발견이 있다. 폴은 야구에서의 기록 중 어떤 것이 가장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세기 이래 활동한 모든 프로야구 팀의 통계를 하나의 방정식에 대입해 수학적으로 탐구하였다. 그 결과 출루율과 장타율이라는 걸 알아냈다. 그 중 출루율이 장타율보다 3배 이상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오클랜드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집중 영입해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다른 구단들도 오클랜드를 벤치마킹하여 출루율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었다.



③ 다른 팀들의 무지

2002년은 빌 제임스의 <야구 개론>을 시작으로 세이버메트릭스가 야구 판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시 풀이 발견한 출루율과 장타율의 중요성도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구단은 없었고 여전히 타율 등의 전통적인 기록과 선수의 외모, 스타성에만 눈길을 돌렸다. 그 결과 오클랜드는 다른 팀에서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트레이드 해올 수 있었고, 수요가 적었기에 머니볼의 취지에 맞게 저렴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

현대에 외선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 등의 지표도 널리 알려지고, 세이버메트릭스도 많이 발달되어 오클랜드의 머니볼은 구식(의 방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배울 점은 많다. 오클랜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어 성공을 거두었고 이와 같은 성공 비법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적용된다. 또한 스포츠와 통계를 접목하여 수학의 범용성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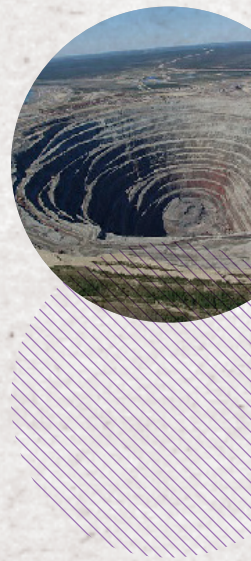
10931 하형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억제책이 시행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정점에 달했을 때 26%까지 줄기도 했다. (GCP, Global Carbon Project 2020) 하지만 이것이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다. 억제책이 서서히 풀리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0만 톤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GCP의 과학자 코린 러쿼리는 현재의 단기적 감소는 '새 발의 피'일 뿐이라며,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 시점 코로나 시기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5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95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파티 비를 국제 에너지 기구 (IEA)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반등할 수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배출량의 감소에 그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지금, 각광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광산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케나다령 북극권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가초 쿠에 (Gahcho Kué)는 매년 400만 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을 정도로 큰 초대형(빼도 상관 없을 듯) 광산이다. 초대형 광산인 만큼 이곳에는 많은 암석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빼도 상관 없을 듯) 이 암석 폐기물 속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가두어 넣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 광산 폐기물들의 강한 알칼리성이다.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암석 조각들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질들인데, 이러한 물질들이 약산성인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강력한 흡수 반응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광산 폐기물들이 다른 어떤 물질들보다 많은 가스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흡수한 뒤에는 그것을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고정 무기물질화 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의 책임자 그레고리 딥플(Gregory Dipple) 교수는 "이는 향후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광산 폐기물 약 20억 톤이 채굴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폐기물들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침출수를 발생시켜 물고기를 멸종시키기도 하는 환경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기술이 더욱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 빠지면 섭섭하다. CCS기술은 지중저장 기술, 해양저장 기술, 광물 탄산염화 기술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들 중 현재 발전 및 소규모로 이용되고 있는 저장 기술은 '지중저장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특정한 지질구조를 가지는 지중에 강제적으로 주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누출되지 않도록 가두어 두는 방법이다. CCS기술은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되기 전에 포집한 다음, 파이프, 차량, 선박 등의 이동수단으로 이산화탄소를 적정 저장 장소까지 운반한 후, 1000m~3000m 이하의 심해나 천연가스가 저장된 지층과 같은 적절한 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듣기만 하면 이 기술이 당장 확대 시행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산화탄소 유출 위험이나 효율대비 높은 비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서 기관들이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잘만 활용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미래가 밝은 기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은 종류가 아주 많지만, 아직 제대로 도입해서 사용될 만큼 완성도가 높은 기술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효율이 높은 기술을 추려서 완성도를 높여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닐까?



자유기사 -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21128 조현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은 로봇과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로봇과 아주 큰 접점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로봇에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공지능은 알파고이다. 알파고는 2016년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뛰어남을 모두에게 알렸다.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연산능력과 정보를 가진 인공지능을 로봇에 탑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 로봇 및 자동화 전문업체인 '화낙(FANUC)'이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 심화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을 적용해 새로운 작업을 가르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화낙은 심화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통해 산업용 로봇에게 훈련하고 있는 작업은 많은 물건을 쌓아놓은 상자에서 물건을 집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아무렇게나 흩어져있는 물

건 더미에서 특정한 물건을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집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가 미국 IBM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검사용 인공지능(AI) 로봇도 있다. 이 인공지능 로봇은 자동차 부품 등이 순서에 맞게 나란히 있지 않더라도 로봇팔이 부품에 접근해 양호한 제품과 불량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숙련된 노동자들이 맨눈으로 해오던 검사 관련 지식을 AI에 이식해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만이 해왔던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량이 증대되고 업무 효율이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따라오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생산직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로봇이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서 생산직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로봇이 고장이 날 경우 생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에는 한 명이 아프거나 다쳐서 생산설비에서 빠지게 된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빠르게 보완할 수 있지만 로봇이 고장이 나게 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으므로 로봇을 고칠 때까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다. 로봇을 고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대단히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로봇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생산직종에 투입하게 된다면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업무적인 효율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투입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작정 앞만 보고 로봇을 사용하지 말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신중한 고민을 거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과 바다를 맞바꾼다고?

20215 윤영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동남아시아는 바이러스에 빠르게 노출된 지역 중 하나이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필리핀의 경우 경제 회생을 이유로 방역 수위를 완화한 지 두 달 만에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6천 명에 다다르면서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7월 27일 국회 연설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백신을 개발하면 필리핀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과 분쟁을 지속해온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8개국이 접해있는 바다로 해운&군사상의 요지인 데다 해저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전망되어 치열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필리핀이 자국 관할의 바다를 중국에 넘기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해양수산부 해운통계에 따르면, 남중국해는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 운송로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송의 목줄을 중국이 쥐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또한 바다를 두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으므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해당국은 EEZ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중국은 자국이 해안선이 더 길고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는 점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통상적인 EEZ 범위보다 더 넓은 바다를 EEZ로 요구하는 중이다. 이 문제를 남중국해의 분쟁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90% 정도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들을 조성하며 해당 해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기선부터 12해리'의 영해를 무시한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 종주권'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옛 사서들에서 남중국해의 암초들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사료로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이렇듯 중국은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타당한 근거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로 자국의 팽창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남중국해에 인접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여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리그와 코로나 19



20106남정훈

k리그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프로 축구 리그이다. 본디 단일 리그였으나, 2012년 승강제를 도입하고 2013년 2부 리그를 창설하면서, 1부 리그 k 리그1과 2부 리그 k 리그 2의 2개 디비전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 횟수가 가장 많은 리그이기도 하다. K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을 꼽자면 FC서울, 전북 현대, 수원 삼성 그리고 울산 현대가 있다. FC서울은 1983년에 창단된 k 리그 통산 6회 우승팀이고, K리그 우승 횟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축구 전용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뛰고 있는 스타 선수들은 꼽자면 이번 여름에 친정팀 서울로 돌아온 기성용과 주세종, 박주영이 있다. 전북현대는 1994년에 전라북도를 연고지를 두고 창단된 k 리그 최다 우승팀(7회)이다. 현재 전북에서 뛰고 있는 스타 선수로는 이동국, 김진수 그리고 이용이 있다. 수원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 축구 클럽이다. 더불어 k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울산 현대는 현재 k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오랜 역사와 우승 경험을 가진 구단으로 손꼽힌다. 현재 울산에서 뛰고 있는 스타 선수로는 조현우, 이청용 그리고 박주호가 있다. 그리고 k 리그에서 가장 독특한 팀을 꼽자면 상주 상무가 있다. 상주 상무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축구단이고 선수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프로리그에서 뛸 수 있게 하여 제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국방부 측의 명분으로 k 리그에 참여한다. 병역 특례가 걸려있는 대회에서 선수들이 실수하거나 졸전을 펼치면 상무나 가라는 욕설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프로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병역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팀에서 뛰는 것이 누구든지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다. 그래서 입단하는 경쟁률이 국가대표팀에 버금갈 만큼 치열하다.

이번 시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달 늦게 무관중으로 개막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그를 진행하는 나라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k리그 중계권은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의 BBC를 비롯한 36개국에 판매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k리그 개막전은 트위터 누적 시청자 수 309만 명을 넘으면서 성공적으로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을 제대로 사로잡았다. 하지만 리그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늦게 개막하여 12개 클럽이 참가해 팀 당 총 38라운드를 치르던 k리그 일정은 축소되었다. 정규리그를 22라운드까지 돌고 파이널 라운드 5R를 합쳐서 27라운드를 치르고 있다. 10개 클럽이 겨루는 K리그2 역시 팀간 3번씩 맞붙는 형태로 27라운드를 운영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경기장 수용인원의 10퍼센트만이 입장 가능하고 전 좌석 온라인 사전예매 그리고 모든 관중은 입장 시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k리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다시 당분간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른다. 그리고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경기의 공허함을 달래고 흥경기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구단들은 각종 다양한 방법의 응원으로 경기장을 채우고 있다. 몇몇 구단들은 선수와 팬이 함께 녹음에 참여하였고, 또 어떤 구단은 경기장 녹음으로 현장감을 살렸다. 그리고 팬들과 실시간 화상 응원 영상 전광판 송출 이벤트를 진행하는 구단도 있다. 설명해보자면 경기 중 전광판에 팬들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다. 현재 K리그는 우승을 하기 위해 그리고 강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리한 정규직화, 결국 피해는 취준생 몫

20303 김정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취업이 약 60%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취업 희망 기업 조사에서는 공무원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20%), 중소기업(19%), 중소기업(18%)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1위로 선정되었는데, 얼마 전 이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이러한 대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수많은 취준생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정규직화 대상자로 추정되는 20대가 SNS에 취준생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격화되었고, 정규직화를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다. 이번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비정규직 제도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가 정규직화에 대해 직접 말할 정도로 이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제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이 채용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을 없애고 오히려 취준생들에 대한 차별을 가한다는 것이다. 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역시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리한 정규직화라는 비판이 대다수이다. 게다가 올해 공항공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경찰 1902명의 정규직화는 인건비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인천공항공사에 앞서 정규직화를 시도한 다른 공기업들 역시 문제가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500여명을 정규직화하면서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가 더 들게 되었고,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의 15%가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임이 드러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항공사 노조는 구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월 합의한 정규직화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의 없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축구 문화제'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정규직화 반대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부로 구분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사장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구 사장은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사퇴를 강요하다 자신이 사퇴를 거부하자 해임시켰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매년 꼽히지만, 이번 정규직화로 인해 수많은 취준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정규직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규직화는 취준생들에게서 신규 채용 기회를 빼앗아간다. 두 번째로는 정규직화 대상 인원의 수가 기존 정직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항공사 정직원은 14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규직화 대상자의 수는 약 2100명으로, 기존 정규직 수보다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무리한 정규직화는 현재 고등학생인 우리가 대학생이 되어 취업을 준비할 때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 교육 판의 변화, 무엇이 바뀌었을까?

20112 윤영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학교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아마 보인고의 많은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온라인 클래스로 학원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눈이 피로하여서 지칠 것이다. 필자 또한 그러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은 격주로 등교를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기 5분 전 마다 체운을 잔다던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청춘을 바치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고, 어느 정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스며들게 되었을 때, 수험생들이나 수험생의 학부모들은 이번 해의 수능 난이도에 관해서 이야기 하게 되었다. 정규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하여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수능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재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평소에 진행해왔듯이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능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이야기했다. 난이도 조절을 하면, 특정 수험생들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난이도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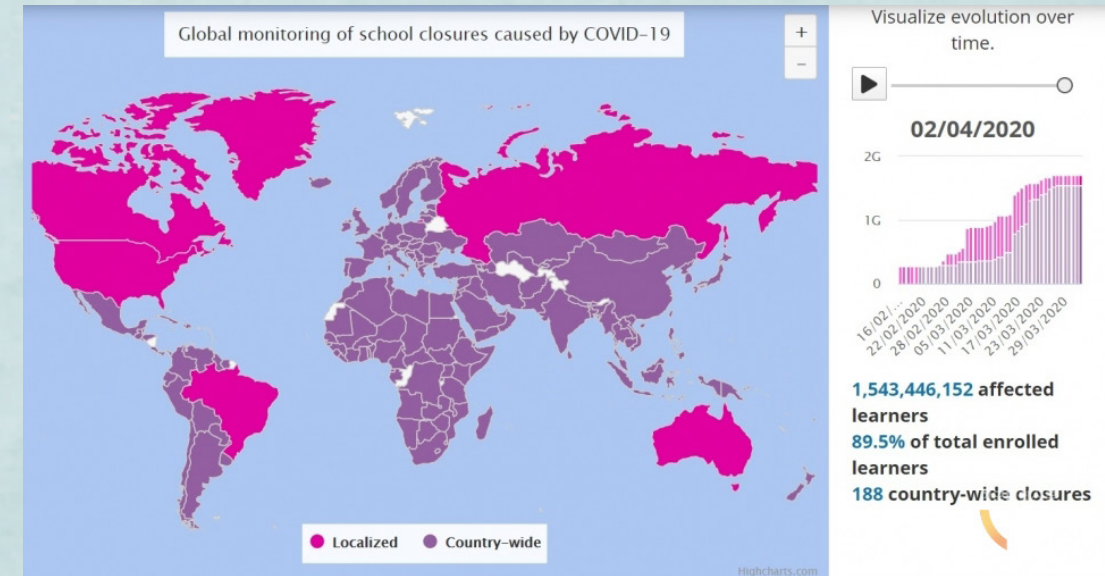
수능이 가까이 오면서 대두된 또 다른 문제는, 수능을 보는 학생 중 자가 격리자나 코로나 확진자는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었다. 만약 자가 격리자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나, 실제 확진자가 일반 학생들과 수능을 같이 보게 된다면, 코로나의 감염속도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질 것이고,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과 접촉한 사람들 모두가 위험 대상이 되는 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교육부는 8월 4일 ‘코로나 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능 당일 체운을 재서 37.5도 이상의 학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확진자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료시설 등에서 격리된 상태로 수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게다가 일반 수능 시험장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코로나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렇게 수험생들은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변화된 학교생활을 겪게 되었고, 입시 변화의 물결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5월 13일, 경남일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주 지역의 고등학생 50명과 학부모 50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행하면서, 장점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침에 온라인 출석 체크를 위해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 평소 학교에 가면 멀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집에서 수업하니 편안하다고 응답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그에 비해, 단점도 존재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강의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컴퓨터 사용 시간의 증가 및 시력 저하 올빼미족 생활, 일방적 방식의 수업 등을 단점으로 이야기했다. 이처럼 학생들도 직접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한 듯 하였다.

더 나아가서 미래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이슈가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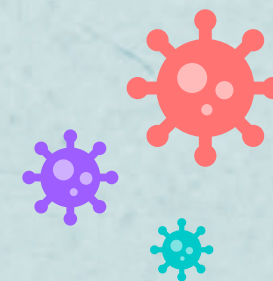
예전과 비교하면 학교 안에서의 수업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수업도 대두되는 것이었다. 학교도 실제 공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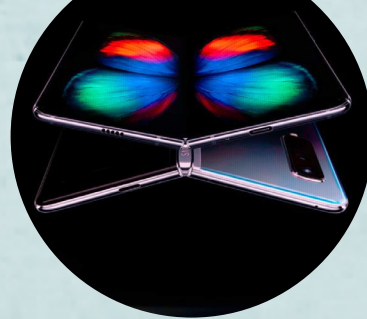


다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간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에 대한 각 학교의 대처방안도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미래에는 국가가 정해주는 수업보다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수업을 수강하게 될 것이고, 학교와 학교 간 연대가 더욱 중요시되고, 결국 현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Technology Problems and Student Achievement Gaps)에 따르면, 실제로 이미 미국 대학들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한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미국 학부생의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고 있었으며, 13%의 학생은 현장 강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수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자면,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타격을 크게 받긴 하였지만, 필자는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바꾸게 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 변화는 입시를 목표로 하는 획일화된 교육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적성에 맞고 좀 더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즐길 수 있게 하는 발판일지도 모른다. 이런 온라인 교육 인프라 조성은 현재 진행하는 고교학점제의 실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침체된 대한민국 교육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기회로 삼아 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폴더블 스마트폰, 세상을 접다

20501 권민재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세상에 등장한 이래로, 자유자재로 휘거나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 기기는 사람들이 미래 모습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곤 했다. 기기가 반으로 접혀 주머니에 쏙 들어갔다가도 큰 화면이 필요할 경우 다시 기기를 펴서 사용하고,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화면이 접힌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수백 명 앞에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스마트폰을 접어 버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미국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에서 삼성은 갤럭시 폴드라는 전례 없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였다. 4.6인치와 작은 화면이 전면에 달린 이 기기는 겉에서만 보면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보이지만 접힌 부분을 펴게 되면 소형 태블릿 PC와 맞먹는 크기의 7.3인치 디스플레이가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큰 궁금증은 바로 기기가 어떻게 접히냐는 것이었다. 더욱이 삼성이 채택한 폴딩 방식은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었기 때문에 패널 가운데가 극단적으로 접혀 일반적인 터치패널과 유리로는 구현할 수 없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사용한 방식은 바로 내부 공간에 힌지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곡률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갤럭시 폴드는 가운데 힌지 부분을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접었을 경우 힌지가 뒤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제껏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활용도 높은 기기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표하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았다.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이 무리가 가 파손이 쉽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홍보를 위해 기기를 미리 받았던 다양한 인플루언서 및 리뷰어들은 제품 공개 이후 엠바고가 풀린 즉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에 파손이 가거나 심한 주름이 생겨 있는 기기의 사진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급하게 주름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 전면에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파손 역시 사용자가 강제로 특수 필름을 제거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라며 반박하였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결국 기기 자체에 부품을 추가하여 재출시 함으로써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삼성과는 달리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한 화웨이의 메이트 X라는 제품도 존재한다. 이 제품 역시 정말 많은 관심과 눈길을 받았지만,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디스플레이의 공급사인 BOE가 저조한 수준의 생산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하여 한동안 정식 출시 일정을 잡지 못하였다. 출시 이후에도 내부 액정이 저절로 파손되고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름이 심하게 생기거나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는 등 크고 작은 내구성 문제들로 인해 판매량 역시 저조하였다.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폴더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논란 및 다양한 내구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가격 역시 일반 스마트폰의 1.5~2배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일반인에게 보급될 수 있는 기기라고 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척한 점과 갤럭시 폴드의 등장 및 이를 보완해서 더욱 완성형으로 내놓은 갤럭시 Z플립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놓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뒤를 이어, 하루빨리 새로운 인재들을 통해 폴더블 기기가 모두의 손에 쥐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펜데믹 속 불편한 진실

20218 이종현

자본주의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 빈부격차라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빈부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있었지만,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격차는 더욱 심화하였다. 빈부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 당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산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은 그들의 자산을 복구하는데 30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빈부격차가 드러났고 격차의 심화가 더욱 확실해졌다.

미국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 4월 10일 3주 동안 2200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동시에 미국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2820억 원가량 증가했다.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베이조스의 재산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1050억가량 하락했다가 곧 하락 전 대비 250억 원이 증가했다.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로 영국의 신문회사 가디언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함께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자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절반의 자산을 기부하였지만 그들의 자산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기부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산 수준을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이 빈부격차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제위기 전문가 척 콜린스 역시 CNN에서 아마존의 베이모스의 사례를 들어 이 사태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억만장자들이 내는 세금이 79%가량 감소했다고 하며 빈부격차의 심화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번 펜데믹 사태로 그 실체가 드러났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마존 주가 변화(9월 11일 기준)

K-방역에 구멍이 뚫리다

황의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2020년 새해부터 급격히 퍼지며,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확산되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바이러스에 일찍 노출되어 초반에는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하루에 200명 가까이 증가하는, 전염병 대응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19에 감염되기 전에 아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외국으로 피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자 많은 나라들의 확진자수는 한국을 뛰어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생겨났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수습해나가는 한국을 지켜보며 외신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두고 연일 칭찬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 19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축은 '국민'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한국인들은 당국이 집안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권고에 따라 행동했던 반면, 서양인들은 정부가 지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정부의 대응이 느려지면서 더욱 악화됐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한국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국민' 때문이다.

한국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300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 초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모임·행사 등을 금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사항도 있었다. 특히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부터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던 사랑제일교회는 어김없이 방역지침을 어겼다. 8월 15일에는 극우단체와 함께 광화문집회를 추진했으며 15일 당일, 전국에서 약 1600명이 모여 집회에 참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며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 지쳐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으며 추석에는 전국에 휴가를 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10월 31일에는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 밀집구역에 '할로윈 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었다. 하루 확진자수가 다시 100명을 넘어가고 있는 현재,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대유행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 입는 경제적 손실은 무시할 수 없으며, 또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은 국민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코로나에 대한 한국정부의 경제대책

20101 권찬형

2020년, 코로나 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그리고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인 자영업 위기와 고용 충격 등 경제의 전 분야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전시상황"에 비유한 위기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체제로 전환,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3월 처음 개최한데 이어 4월부터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동,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한국 정부는 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실행하였다.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받아 지급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부터 신속 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이고있다.

두 번째로 한국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실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대상이며 3개월간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기타 지원책으로 산업, 업종지원책을 실행하였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 및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에 최대 5억 운영자금을 긴급 융자하며,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국제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 및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 업종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항공·해운·교통업계를 위해 항공사 공항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및 유예, 조업수수료 7개월 면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운송 관세 인하, 저비용 항공사·여객선사 등에 등 긴급 운영자금 및 경영자금 긴급융자, 공공차량 조기구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여러 정책을 실행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국제적 위기인 만큼 정부의 책임과 능력이 중요하다.

세계의 다양한 선거의 모습 이모저모

20216 이승우

누군가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번에는 참정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1948년 정부수립을 위한 5.10 선거를 치르기 위해 미군정에서 법령을 정한 것이 최초였다. 이 법령에서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고, 친일 부역한 자는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하였다. 이 선거권은 1950년 6월에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연령을 20세로 낮추었는데, 이때는 친일 부역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20세로 고정된 선거권은 2005년에 가서야 만 19세로 낮춰졌다.

그렇다면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국민의 대표로 뽑힐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은 법률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의 경우에는 25세 이상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는 먼저 만 18세 이상이고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의료적으로 판단되어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죄를 짓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5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먼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 우리는 직접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반면 미국은 간접선거로 주마다 먼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그 후보가 모두 가져가는 형식이다. 미국이 이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부 인구가 집중된 주에서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직선제로 하게 된다면 후보들은 인구가 많은 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주에만 유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많고 후보 또한 인구가 많은 주에서만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을 건국한 지도자들이 2개의 정당이 정책 대결을 하면서 번갈아 정권을 잡도록 하는 양당 제도를 원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택했다고 한다. 직선제를 하면 후보가 속출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선거제도를 시행하면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이상을 받아야 당선되기 때문에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고 전국적인 지지기반이 없는 군소정당은 출현하기 어려워진다.

그 이외에도 각 국가마다 특별한 선거 모습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적는다고 한다. 이름을 직접 적음으로써 후보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서명 후에 가족이나 친구 등의 투표를 포함해서 혼자 최대 3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호주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문맹율이 높은 이집트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얼굴이 인쇄 되어있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에는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우리도 나중에 선거 가능 연령이 되었을때 꼭 잊지말고 민주주의의 뜻을 되새기며 투표에 참여하는게 어떨까?

코로나가 가져온 21학년도 대입의 변화: 수시 비대면 면접



21109 박상배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여러모로 학생들을 괴롭게 만드는 해인 것 같다. 15개정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이고, 2022학년도에 개편될 수능과 09개정으로 치루었던 마지막 수능인 2020학년도 사이에 끼인 애매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 수능 및 수시 원서접수일 연기, 수시 면접의 비대면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보인고 학생들은 수시 지원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비대면 면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대학들은 많은 수험생들이 모이는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문제없이 시행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비대면 면접 가운데 화상 면접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므로 현장 면접과 다를 게 없는 반면, 현장 녹화 방식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지원자가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보고 답하는 것이다. 면접관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방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 면접이 진행될 때 면접관의 표정, 태도 등을 읽어가며 질문을 보충해 나가는 상호작용이 생략되기 때문에 대면 면접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 번에 완전히 정제된 문장으로 대답하는 능력이 중요시되어 보인다. 이러한 영상 녹화 방식을 채택한 대학으로는 고려대, 연세대 등이 있다.

면접이 비대면화 됨에 따라 대학별로 면접 방식이 다양하므로 입시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원하는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 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① 보인극단

PLAYBOIN 박지원(이하 P) 은새미로 조현준(이하 C):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은새미로 2학년 부원 조현준입니다. 오늘은 보인고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리 '보인극단'을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는 부장 박지원 학생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이하 P) 안녕하세요. 보인극단 부장 박지원입니다.

C 질문에 앞서, 보인극단은 어떤 동아리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P 보인극단은 연극이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감독이나 배우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연극을 준비하여

연극을 만들어내는 동아리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서울시청에서 주최한 학교폭력예방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C 아 그렇군요! 그럼 학교폭력예방연극제에 출품한 작품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P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출품한 연극에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는 아픔을 표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다르게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녹여 넣어서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C 아 요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연극이었군요. 그렇다면 연극을 준비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으셨을텐데 어떻게 연극을 준비하셨나요?

P 저희는 학년에 상관없이 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나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이신 안소라 선생님, 강호준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인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시고 계신 선배님이 연극을 구성하고 대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재미있고 원만하게 연극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C 보인고를 졸업하시고 뮤지컬 배우를 하고 계신 선배님과 든든한 담당선생님이 계셨군요! 그리고 보인극단을 하면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P 보인극단을 하면 다른 동아리들과는 다르게 부원들과 함께



i n t e r v i e w

많은 활동을 하는 연극을 하다 보니 선배님,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만드는 일 등으로 살면서 경험해보지 일들을 학창 생활에 체험해볼 수 있어서 큰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 확실히 예체능 쪽 동아리이다 보니 활동이 많아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아직 동아리에서 해보지 못한 활동 중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P 지금까지는 보인극단에서 학교폭력예방연극만 만들어 출품했지만, 제 꿈이 영화감독인 만큼 연극보다는 단편영화를 만들어서 학생영화제에 출품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2020년에 단편영화를 만들어서 출품할 계획이었지만, COVID-19로 인해서 영화제가 취소되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C 아 영화제가 취소되었다니 정말 아쉽네요. 내년에는 COVID-19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인극단에 들어가려면 면접을 봐야하는 것으로 면접을 알고 있는데,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P 저는 보인극단이 PD, 감독이나 배우가 장래희망인 친구들이 모여서 연극을 만드는 동아리이지만 연기실력이나 디렉팅 능력보다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만들다 보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능력이 향상되어서 연극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서로 기분 좋게 연극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 마지막으로 내년에 보인고에 입학하게 될 2021학년도 1학년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P 보인고 내의 치열한 학업경쟁으로 지친,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면, 보인고등학교의 최고의 예체능동아리 보인극단에 들어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인극단의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C 지금까지 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② BEAT(예비교사동아리)

i n t e r v i e w

PLAYBOIN 이종현(이하 L)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온새미로 2학년 부원 이종현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보인고 유일의 예비교사 동아리 BEAT에 대해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는 BEAT의 부원 정세운 학생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운(이하 J) 안녕하세요, BEAT 부장 정세운입니다.

L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BEAT가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J 저희 동아리는 사범대, 혹은 초등교사나 교육 분야로의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인강 촬영, 교육보고서 작성 및 토론 등 교육과 관련되어있는, 구체적으로는 사범대 진학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L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 같은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되는 시간이 많아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J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동아리에 참여하다보면 활동에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슴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저희 동아리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쉬는 날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시로는 교육 신문 작성하기를 하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키고 토론을 하거나, 수업지도안 작성을 직접 작성해보고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L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정세운 부장은 어떤 교육자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J 저는 원래 초등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 보인고 선생님들을 보면서 중등 교사를 목표로 하게 되었는데요. 보인고의 선생님들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수업도 재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BEAT에서 진행한 활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처음으로 '모의 면접'이라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의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J 먼저 이 활동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면접을 봐야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이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또 예비교사 동아리이기 때문에 주제는 당연히 교육에 관한 주제로 했습니다.

L 정세운 부장이 직접 면접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J 면접관으로서의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면접자로 참여하여 면접이 끝난 뒤에 주변에서 보고 있던 다른 부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그것을 통해 자세, 태도 같은 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 면접이라는 상황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 이해도를 올릴 수 있고, 다른 부원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 더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에 교사를 희망하는 신입생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J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 과정 중 필수라고 할 만한 것 중 하나가 BEAT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BEAT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 본인이 교사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L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③ Essentia(토론 동아리)

i n t e r v i e w

PLAYBOIN 황의선(이하 H) 안녕하세요. 저는 교지편집부 온새미로 2학년 부원 황의선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토론동아리 Essentia 부원 김민석 학생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동아리 취재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이하 K) 안녕하세요. Essentia 부원 김민석입니다.

H Essentia가 토론동아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인지 알려주세요.

K 네. 저희 동아리는 세다, 원탁, 반증법 등 다양한 토론형식과 각각의 절차에 따라 토론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직접 토론해보는 동아리입니다.

H 그렇군요. 부원이 여럿인 만큼 토론 주제도 다양했을 것 같은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나요?

K 사실 처음에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게 의외로 힘들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는 문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과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주제 선호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과 학생들과 문과 학생들의 토론 주제를 따로 정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주제로, 문과 학생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펼쳤습니다. 공통 주제로는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H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 주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K 아, 말이 길어지면서 실수했네요. 토론에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모든 토론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스포츠 경기에서의 기술도핑 찬반토론을 진행할 때 많은 학생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H 체육을 좋아하는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관심 가질만한 주제네요. 그런데 아까 부원들이 모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Essentia에는 토론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동아리군요?

K 맞아요. 저희 동아리에 가입하는 친구들은 토론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들과 나누고,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물론 다른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에 동아리활동 내역을 정성껏 적어드립니다만, 단지 두꺼운 생활기록부 때문에 Essentia에 가입하려는 학생들은 별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토론이란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H 아무래도 토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19 때문에 동아리활동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모두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K 이미 답을 예상하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온라인 동아리를 하며 마이크나 카메라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었죠.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야죠.

H 이런 문제를 Essentia만 겪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은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K 좋은 삶든 살아가면서 논쟁할 일은 수없이 생깁니다. 이럴 때 막무가내로 말하면 절대 논쟁에서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토론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인고등학교를 다니며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토론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H 김민석 학생의 말대로 Essentia는 어쩌면 모두에게 필요한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K 저도 감사합니다.



10대,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바람의 노래 - 소향 (원곡: 조용필)

10624 정지성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가면 그때는 알게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수가 없네
내가 아는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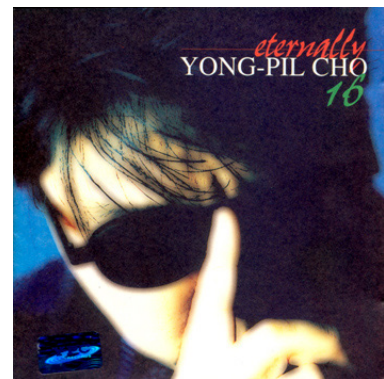
보다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수 없다는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수가 없네
내가 아는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수 없다는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수 없다는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J: 멜로디도 좋지만 알고 보면 가사가 더 좋은, 그런 타입의 노래입니다.
영화로 치면 흥행도 하고 작품상도 받은 느낌이었을까? 평소엔 멜로디를
듣고 힘들 땐 가사를 들어보세요. 참고로 이 곡이 OST로 쓰인 드라마 고
백부부도 명작이니깐 같이 보세요. 광고 아닙니다.

20215 윤영훈

리쌍 - Rush (Feat. 정인)



*hook)길
지나간 날은 모두 뒤로(뒤로)다가올 날을 향해 Hi-Lo(Hi-Lo)
준비된 손은 이제 위로(위로)다가올 날을 향해 Hi-Lo(Hi-Lo)

*verse2)개리
이 작은 마이크 하나로 흔들리는 날 지킬 수
있기에 언제나 맞이할수 있는 많은 기회그 작은 행복이
내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 한평짜리 삶에서 100평짜리 행복을
만들

수 있는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

...(중략)

*verse)개리
이제 쿵치!땃! 흐르는 비트 위로 내 삶의 고통을 잘근잘근 씹

어 뻔으며 또다시 동이트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리. 이리 오너
라 이념의 세상아~!해어차피 행복이란건 수많은 엔지끝에 얻
는 한컷

《Leessang Of Honey Family》는 2002년 6월 27일 발매된 리쌍의 1번째 정규앨범이자 데뷔 앨범. 리쌍의
음반 중 음악적으로 정점을 찍었다 평가받는 앨범이다. 그중 타이틀곡인 Rush는 리쌍 최고의 곡들 중 하
나로 꼽힌다.

우리는 지난 한해를 코로나사태로 인한 혼란 속에 보냈다. 학우들을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을뿐더러 익숙
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도전을 해야만 했다. 길의 중독성 있는 후과 길의 노련한 랩스킬이
담긴 벌스들은 우리가 삶속에서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결국 결과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으며 힘찬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Livingston-
fairytale

윤영규 2012

Then my mother asked me
그 때 엄마가 내게 물었어

could you find confidence beyond lightning mcqueen,
라이트닝 맥퀸을 뛰어넘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냐고

Cause stories won't last once you wake up from your dreams
꿈에서 깬 순간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니까

왕따의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던 17살 작곡가인 livingston이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삶을 이어나갈 원동
력을 찾게 해준 픽사의 영웅들(노래 가사에 종종 등장)에게
바치는 노래이다.

이 가사는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심화된 과정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잃
어가는 나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준 노래이
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수능이라는 목표 혹은 더
크게는 대학 혹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텐데,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기 않으면서
꾸준하게 달려갔음 해서 이 노래를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기리보이
- 그 정도 짬이야

하형준

날 위로하지만, 나 정말 관찮아
그런 표정하지만, 나 원래 이래
그냥 투덜대고 싶어서
나답지 않게 굴고 싶어서
그냥 조금 아플뿐야
관찮아, 너 정도 짬이야

보인고에서 공부할때,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성
적이 생각처럼 안 나와줘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정
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운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와 좌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얼른 뿌리치고 다
시 공부의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준 노래 - 기리보이 <그
정도 짬이야>를 추천합니다. 공부를 하던중 이유없이 짜증이
나고, 과거의 실패에 두려움이 생길때마다,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투덜대고 싶어서, 나답지 않게 굴
고 싶어서 짜증을 내는 것 뿐이니 다시 공부를 하자! 공부정도
짬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노래입니다.



백예린 -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이 아닐거야

20216 이승우

그러니 우린 손을 잡아야 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기쁨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노래는 2019년3월18일에 발매한 백예린의 Our love is great
의 수록곡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이 아닐거야의 가사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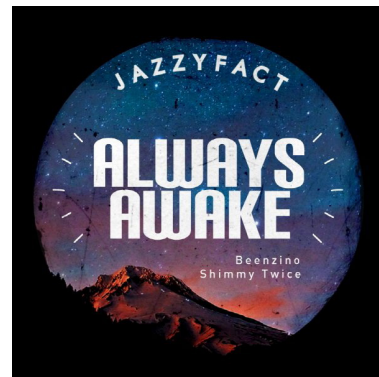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로 인해 익숙한 것도 잃어버리
게 되었다 익숙함에 속아 당연하다고 느끼지말고 다시 한번 주
위를 돌아보는거는 어떨까



Always awake-빈지노

전웅인

모두가 등한시하는 밤 하늘에 뜬 달
 곁에 있는 별처럼 깨 있는 나
 잠이 든 자에게는 내일이 와
 허나 난 내가 먼저 내일을 봐
 만약 오늘 내가 죽어도 시간은 가
 움직이는 시계 바늘이 실감이 나
 시간에 뒤처지거나, 같이 뛰거나
 선택하라면 신발을 신을꺼야
 커피 한 잔을 비운 다음에
 심박수를 키운 다음에
 한 숨을 심표처럼 짝고 다시
 한밤중에 싸움을 해. 왜?
 왜냐면 난 내가 내 꿈의 근처라도
 가보고는 죽어야지 싶더라고
 Yo, I gotta live my life now, not later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태양이 밤 하늘의 달빛을 가려도 always awake



보인고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이 있기에 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꿈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노래 중 저는 빈지노의 'Always Awake' 를 뽑
 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기간 때 새벽에 너무 졸린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며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렸었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열정을 응원해 주
 는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이 노래를 듣고 조금이
 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맑은 정신을 갖고 깨어있
 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레트- 아이유 (feat.gd)

권민재

어려서 모든 게 어려워
 잔소리에 매 서러워
 꾸중만 듣던 철부지 애
 겨우 스무고개 넘어
 기쁨도 잠시 어머
 아프니까 웬 청춘이래

스물 위 서른 아래
 고맘때 Right there
 애도 어른도 아닌 나이 때
 그저 나일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워서 꽃잎 활짝 펴서
 언제나 사랑받는 아이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선배님들을 비롯하여 몇 년 후면 우리
 모두가 20대가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
 을 것이다. 분명 지금보다 나은 점도 생기겠지만, 그만큼 또
 다른 실패와 좌절들도 기다리고 있을텐데 그러한 상황을 가
 시를 통해 짧지만 정말 잘 나타낸 것 같다. 이전까지와는 너
 무나도 달라진 환경에 어려움을 겪지만 남들은 그저 아프니
 까 청춘이다 라는 말 등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절에
 대해 이미 경험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쓰여진 이 노래가 조금
 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달리다
- 이적

이종현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남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꺾기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설혹 너머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 내린다고 해도
내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거야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아무리 뚜렷해도 그 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노래 '하늘을 달리다'의 가사 중 '그대'를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생각하고 들으며 다시 한번 목표를 되새기며 처음 그 목표를 세웠을 때의 설렘과 열정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겁니다.



BTS
- dynam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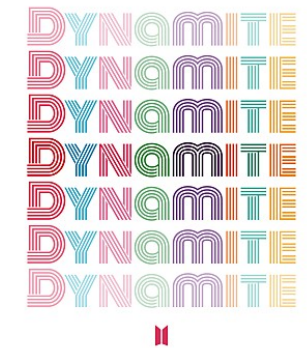
남정훈

cos ah ah i'm in the stars tonight
난 오늘 밤 별같은 존재니까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그러니 내가 불빛을 가져다가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 and soul
약간의 펑크와 소울 비트로 이 도시를 뚫고 빛날거야

제가 이 방탄소년단의 dynamite 가사를 뽑은 이유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업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노래의 희망적인 가사를 듣고 위로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 and soul (약간의 펑크와 소울 비트로 이 도시를 뚫고 빛날 거야)'이 부분을 듣고 그때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밤과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별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가사가 인상깊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밤과 같은 어두운 상황에 있는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가사에서 나오는 'dynamite'처럼 언젠가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 빛날 것입니다.



cheap
sung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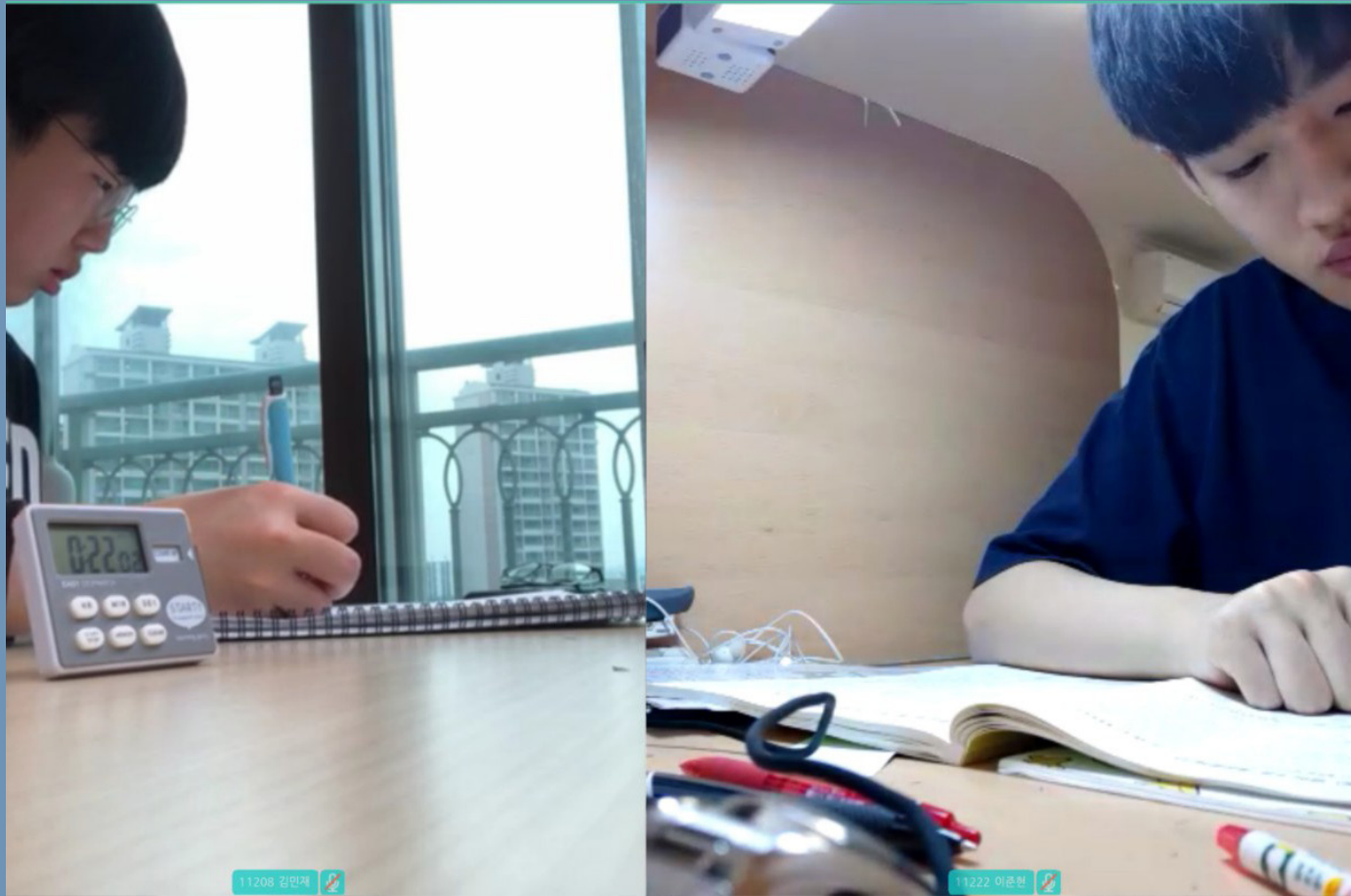
이래서 좋은 걸 못해
This is why I can't have nice things,
yeah
내가 질문하기 때문에
'Cause I question
내 삶의 모든 축복
Every blessin' in my life
Ooh-ohh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The second I, I put my heart out, yeah
조금이라도
Even just a little bit, yeah
당신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걸 알아
I know you'll walk all over it



Boin High School

코로나 특집 코너

4



성공이란 / 랠프 월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지혜로운 사람에게 존경받고
해맑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에게 인정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반을 견뎌내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는 것
튼튼한 아이를 낳거나
한 뼉의 정원을 가꾸거나
사회 여건을 개선하거나
무엇이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자네가 이곳에 살다 간 덕분에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네.

Boin High School

01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1학년>

- 11118 이유찬 학교 축제나 여러 활동을 즐기지 못했음
- 10807 김선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반복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 10719 윤준호 마스크를 거의 하루 종일 끼고 생활하는 점
- 10617 배병찬 수업을 컴퓨터로 하다보니 눈과 몸의 피로가 누적된 것
- 11112 손예찬 예정되어있던 트와이스 콘서트를 못갔어요ㅠㅠ
- 10710 박정혁 컴퓨터 활용 같은 교양과목의 수업이 거의 없어짐
- 11129 조동준 같은반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 어려웠다
- 10217 오정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오류가 자주 나서 수업 내용을 못 들은 적도 있었다.
- 11114 심재민 오수 시간이 없었고, 자기주도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10809 김승호 체육 활동을 많이 못했다
- 11131 한동훈 밖에서 축구를 자주 못했다.
- 10814 박성민 보인고의 메리트인 야자가 없어져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잡기 힘들었다
- 10731 황산하 코로나로 인해 반 친구들과 놀지 못해서 아쉽다

<2학년>

- 20208 김현우 온라인 수업 중간중간 와이파이기가 계속 끊겨서 힘들었다.
- 20914 송준서 학원 현장을 듣지 못하고 집에서 거의 온라인 학습이나 인강으로 해결했던 것.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일이 적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친해지기가 조금 힘들었고, 학교생활을 즐길 수 없었다. 수업자료도 원래 학교에서 받아서 좋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직접 뽑아야 해서 정말 귀찮았다. 창체 활동이 너무 적어서 생활기록부 작성이 힘들었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다. 집에서 주로 있게되니 가끔씩 미디어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적도 있었고 할 일을 미룬 적도 있었다. 원래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오히려 밖이 너무 그리워지기도 했다.
- 20501 권민재 노래방 못 간거
- 21221 이종민 돌아보면 크게 없었던 것 같다
- 20503 김두경 없어요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대!
- 21201 권용재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다.
- 20907 김인후 인생
- 20531 홍경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함
- 20820 이지훈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점
- 20314 이주석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것(노래방..)
- 20304 김현중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대로된 수업이 불가능하여 예전에 비해 수업에서의 집중이든 수업 습득량이든 조금씩 부족해지는 것이 문제인 듯 하다.
- 20605 김승진

<3학년>

- 30314 김준형 고3,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나태해지고 게을러 졌다는 점.
- 31027 정지민 마지막 학년으로서 체육 수업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 30532 한석진 복잡한 심경과 집중할 수 없었던 공부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집중해 공부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 30310 김민우 여름에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 30226 전정호 수능 끝나고 집에만 있었던 것
- 30521 이동훈 아이즈원이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했다
- 30311 김성수 수능이 끝나도 마음대로 나가서 놀지 못하는 것
- 30211 맹준성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
- 30816 박지호 축구 못 하는거
- 30232 한동화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 썼던 것
- 30317 박진한 마스크 쓰고 오랜시간 공부하기 어려웠다.
- 31025 정기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자습이 어려웠던 것
- 30504 김근용 지금 놀러가지를 모태...



과제 다했니
당연하지요

02

코로나19의 시기, 이전의 삶과 가장 달라진 모습은?

- 집에서 뒹굴거리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점심시간이 늦어졌다 절대안쓰던 마스크가 집에50개씩 있다
- 당연히 살찐 뺏살과 살찐 팔뚝과 살찐 등과 살찐 얼굴과 푸석해진 피부와 소파와 오뎀한 신혼을 지내고 있는 모습
-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 오프라인 때에 비해 집중력이 짧아졌다. 하지만 한 곳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에 자주 움직이고 싶어하는 나의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
-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 수업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필기충이었던 제가 필기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필기충으로..
- 무조건 밖에서만 했던것들을 집에서 하려고 해보았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늘었다 ㅎㅎ결국은 집이 최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살찐다.
- 슬픈 현실이지만 코로나 이후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되었다. 코로나에 걸린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나도 모르게 기침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꼭 눌러쓰는 내 모습을 보고 무서웠다.
- 집에서 뒹굴뒹굴해도 부모님이 뭐라 하실 수가 없다. 학원을 아침 10시에 가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 시험이 끝나니 시험기간이 300일 이상 연장된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 사람에게 내 뜻을 전달할 때 글자로는 부족한 걸 깨달았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훨씬 친해지지 않았을까? 중학교 3년내내 가장 좋았던 기억을 꼽으려면 망설임 없이 수학여행을 끝났을 만큼 수학여행에서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면 좋았으련만..

보통 학교를 다녔을 때는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반 친구들이나 다른 반 친구들과 다같이 축구를 즐겨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점심을 먹고 가만히 앉아서 쉬게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게을러졌고 움직임도 줄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야자를 안하면서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밖에 오래 있지 않아서 시험기간인데도 아프지도 않고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03 **코로나19로 오히려 좋았던 점이 있다면?**

〈1학년〉

- 10809 김승호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 10821 이경환 외출을 잘 못해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니 진로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거나 왓차에서 평소에 보고싶던 영화를 보는 등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 10814 박성민 온라인 클래스로 잠을 1시간 더 잘 수 있다
- 10116 우종건 고등학교가 빨리 지나가는 느낌
- 10711 박현민 크리스마스에 나가지 않아도 동정받지 않는다.
- 10207 김재현 새로운 소통방식 체험 및 실시간 소통 가능
- 10212 문선호 집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었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때 선생님께 이지부가 아니더라도 카톡 등을 사용하여 질문하기 쉬웠다.
- 11213 김태현 미세먼지가 적었다.
- 10610 김은결 공부할 방향의 설정을 고민할 시간이 더 많았다
- 10517 서성원 통학 시간이 사라져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11117 이선우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개인 공부할시간이 늘어났고 혼자 있다보니 공부에 집중하기 더 좋았다.
- 10227 차민우 늦게 일어나도 되는 것
- 10210 김현재 집에서 공부하니 학교나 학원 이동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었다.
- 10828 한승수 온라인 학습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가 멀어서 힘들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 11125 전세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2학년〉

- 20630 최준교 학교나 학원을 왕복하는 시간을 줄여 집에서 공부하거나 쉴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다.
- 20304 김현중 야자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해의 피로를 풀 수 있었다

- 20917 이건희 저녁에 산책할 때 조용하고 길에 쓰레기가 적으며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비교적 줄었다.
- 21117 오승원 하늘이 맑았다
- 20501 권민재 모든 학생들이 공감할 것 같은, 수면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었다. 학교와 학원 모두 이동 시간을 없앨 수 있어서 내 시간을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좋았다.
- 20201 권해준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 환경문제가 개선되었다.
- 21123 이현승 조회 시간이 미뤄져서 조금 더 잘 수 있었다
- 21223 임현준 원격수업이 자습에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 같다.
- 21217 이동원 새로운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다
- 20530 최준혁 휴식이든, 공부든 원래 학교 다닐 때보다 생활이 자유로워졌다. 학교에서 자습할 때는 친구들이 있어서 집중이 잘 안될 때도 있었는데 그 시간에 독서실 또는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자습을 해서 효율이 좋았다.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인지는 몰라도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쳤다.
- 20820 이지훈 학교를 안가도 됨
- 20305 노정현 집에서 안전하게 수업
- 20314 이주석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 20928 조현민 자습할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 20933 허주영 미래 사회 체험

〈3학년〉

- 30324 우진형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 31019 이윤수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에 힘씀
- 30226 전정호 마스크를 써서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커플을 안 봐도 돼서 좋았다.
- 30319 방송재 야자를 안 했던 것이 아주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독서실에서 조용하게 더 쾌적한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제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재관의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가 절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고3이었던 저에게만큼은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30328 이진석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
- 30308 김동환 야자가 없어서 방과 후의 시간을 자신의 부족한 과목을 위해 학원을 간다거나 집에서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시간을 나누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30304 김관형 학교 안 가는거 개꿀
- 31025 정기환 나만의 자습시간을 가진 것
- 30817 서윤성 사람들의 시선 신경 안 씀
- 30310 김민우 집에서의 공부가 한눈 팔 일 없고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다.
- 30330 조영탁 학기 중 놀기에 좋았다...ㅠㅠ
- 30524 이승민 온라인 수업 체험
- 30321 송우성 야자를 안한 점
- 30521 이동훈 공기가 좋아졌다
- 30504 김근용 합법적 히키코모리? 오히려 좋아

04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및 자율 학습 할 때 공부가 잘 안될 때 나만의 비법은?

〈1학년〉

- 11129 조동준 캠을 켜서 선생님의 감시를 일부러 받는다
- 10828 한승수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듣는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공부가 잘 안될때 장소를 옮기면서 하였습니다
- 11113 신윤태 랩 하면서 스트레스 풀기
- 10214 서태익 백색소음 어플 사용
- 10205 김승규 롤 한판 돌리고 다시 집중
- 10217 오정훈 온라인 수업 때는 휴대폰 전원을 꺼서 서랍에 넣어두었고, 자율학습 할 때는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여 그 날에 해야 할 일을 빨리 끝내고 여가시간을 가졌습니다.
- 10209 김행운 나의 성적표 보기
- 11115 양지웅 베란다나 아파트 복도로 나가서 공기를 마신다
- 10807 김선우 독서실에 간다
- 10730 하상원 음악을 한 곡 듣는다
- 10809 김승호 일어나서 듣는다
- 11117 이선우 주변에 전자기기를 놔두지 않는다.
- 10715 송준우 마우스 숨겨두기
- 10814 박성민 친구들과이랑 이지부에서 캠 켜고 공부
- 10703 김도훈 수업용 전자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 전원끄기

과제는 다 했나요?
게임은 적당히



〈2학년〉

- 20318 조윤희 5~10분 정도 단어 암기나 금방 끝낼 수 있는 짧은 일들을 하다가 다시 안되던 공부를 한다.
- 20921 이송원 커피를 많이 많이 마신다.
- 21102 김령 쉬는 시간에 짧게나마 잡을 청하거나,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 21212 송성민 나갈 때 입을 옷을 입고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틀어 밖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차갑게 한다.
- 20531 홍경의 협곡에 잠시 갔다온다
- 20501 권민재 미디어 기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가장 많은 방해받았던 것이 미디어 기기였으므로, 위에서 말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20324 최준영 핸드폰을 금고에 넣고 의자에 몸을 묶는다.
- 20304 김현중 친구들과 줌으로 공부했다.
- 20205 김정태 환기를 시킨다
- 20613 송찬우 공스타 이용하기
- 20224 조채민 그날은 공부를 그만하고 내일로 미룬다.
- 20603 김동희 전자기기 다 놓고 혼자 독서실 가기
- 20616 유경민 집에서 단 음식을 찾아서 먹어서 다시 함
- 21103 김완준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 공부한다
- 20903 강준석 쉬다가 다시 시작한다.

〈3학년〉

- 30308 김동환 독서실이나 도서관 등 자신이 공부할 때 가장 집중이 잘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가서 공부한다.
- 30309 김민성 녹화 강의 내용 캡처해서 공부
- 30319 방승재 3학년 1학기 특성상 항상 집중을 유지해야 했기에 공부가 딱히 안 됐을 때는 없었지만, 2학기 들어서는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지하철들을 보면서 수능이 끝나면 마음대로 타러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지하철이 아닌 아이돌 콘서트를 보면서 수능이 끝나면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무언가를 수능 끝나고 보러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그 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이 되니까요.
- 30532 한석진 대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비법에서도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0521 이동훈 일단 놓고 내일의 나를 믿는다
- 30310 김민우 민족의 아리아를 들었다.
- 31027 정지민 좀 쉬었다가 어느 정도 쉬었다 싶으면 재개
- 30322 신상엽 대학 생활 상상하기
- 30314 김준형 아예 놀아버리거나 밖에 나갔다 왔다. 아예 시간을 정하고 놀아버리면 나중에 더 집중이 잘 됐다.
- 30504 김근용 쪽잠이 최고입니다.
- 30819 소지원 집 주변 산책하기
- 30823 이민우 그런거 없음 공부가 안 되면 쉬어야지
- 31019 이윤수 잘 안 된 적 없음
- 30226 전정호 컵라면을 끓여 먹는다
- 30312 김정우 간식 먹기

05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에서 보고 들은 나만의 웃픈 에피소드가 있다면?

- 11124 임유찬 마스크 때문에 어지럽다고 했다가 선별진료소 간것
- 10719 윤준호 마스크가 끊어져서 버스를 못 타 학원에 지각한 친구가 있었다
- 20825 조성윤 샤워하고 나왔는데 카메라에 다 찍혔대요~~~~
- 20206 김태환 마스크가 익숙해져서 마스크 낀 채로 음식을 먹어버렸다
- 20201 권해준 살이 14kg 췌다
- 10727 지선우 2.5단계에서 동생이 친구를 초대하겠다고 해서 동생이랑 부모님이랑 대판 싸움
- 20917 이건희 개 산책 중 휴지가 없어서 마스크로 똥을 치웠다
- 10726 정지용 자주 듣는 노래의 가사 중 여긴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쓴다는 가사가 있는데 현실이 되어서 웃음
- 10212 문선호 등교수업 하는 날을 온라인으로 착각하여 학교로 달려감
- 20918 이다훈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보냄
- 20921 이송원 장염에 걸려서 침대에 노트북을 들고 누워있을 때 캠이 켜져서 ㅎㅎㅎ
- 30314 김준형 개근상이었는데 9시 30분에 들어가지 못해서 개근상 못 받음

06 우리반 온라인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BEST3 ?

10817 송주혁	강호준 선생님 수업 중 개가 짖음
10809 김승호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열정 브리핑
30823 이민찬	온라인 수업을 안 들어서 모름
10710 박정혁	1.김도훈 2.김도훈 안 들어옴 3.김도훈 출책 안함
30311 김성수	어떤 학생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들어와서 피아노를 친 것
11106 김재현	한문쌤의 귀여운 헤드셋, 튠튠쌤, 강호준쌤 드립 1. 강호준 쌤이 수업시간에 캠을 종이로 내리치시며 이른바 '온라인체벌'을 하신 것. 본인도 의도 하셨겠지만, 많이 재밌었습니다. 2. 처음 온라인수업을 했던 날. 이게 뭐하는 건지 싶었습니다. 3. 온라인 상에서 서술형 답안지를 체크한 것.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10821 이경환	강혁이♥♥
30517 빠끄띠끄	PC방
30516 양강혁	점심시간에 엄준식이 들어와서 나비보벳따우 틀다가 나갔다.
20806 김세이	1.반 친구가 캠에 대고 졸아서 이 녹화함 2.친구 동생이 옆에서 수업 들음 3. 1의 주인공이 다시 졸아서 이 시리즈물로 만듦
10727 지선우	출석 늦은 이유가 아파트 화재라고 한 친구 반 친구 동생이 출석 대타 뛰고있다 걸린거
11113 신윤태	수업시간에 주식하는 친구 게임하다 걸린 친구
10205 김승규	어떤 친구가 컴퓨터가 뜨거워서 아이스팩을 사용함
20907 김인후	선생님들의 자택근무 모습과 중간 중간 들리는 아이들 목소리
20107 익명	

07 온라인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혹은 선생님은? 그 이유와 함께 써주세요.

- 전재훈 선생님- 설명으로 채팅을 이용하시는게 너무 웃겨요..zz
- 김영만 선생님- 수업을 재밌게 하신다.
- 이영석 선생님- 수업 준비를 정말 분명히 하신다.
- 지소현 선생님- 너무 재미있었다.^^
- 배은영 선생님- 유튜브에서나 쓸 것 같은 고품질리티 인트로를 도입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 성환석 선생님- 온라인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 가장 궁금했기 때문이다.
- 배은영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실 것 같다.
- pike 선생님- 매우 열심히 수업을 하신다.
- 다 기억에 남는다
- 담임선생님 (전재훈 쌤) 출책을 특이하게 하신다
- 과학사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궁금했음
- 한국지리 유튜브 수업
- 사회문화, 체육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유는 선생님들의 빨간 볼이 인상깊어서
- 김태형 선생님 모든 수업을 라이브로 진행하셨다.
- 김태형 선생님, 그냥 재밌으시다~
- 한만준선생님-온라인수업 도중에 사라진 학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매일 노력하신다.
- 전재훈 쌤, 세계 최고의 선생님이시다. 머리를 조아리자, 사랑합니다 쌤
- 역시나 지소현 쌤? 작문 과제 하나하나가 주옥같다.
- 김태훈 쌤이 영상 퀄리티로 높이려고 하시고 유튜브로 시작하여 본격적이시길래 놀랬다. 프랑스어 하고 싶으셨나 보다.
- 지소현쌤의 화작 수업- 매일 실시간 작문 과제 때문에 게임하기 힘들었다.
- 김영만 선생님, 항상 스릴 넘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 김태훈 쌤의 지구과학 수업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강의 영상들을 모두 올려 주셨고, 모의고사 문제들 개념 영상까지 모두 올려주셔서 태훈 쌤의 열정에 감동했었다.



전화 좀 받는게 어머니?
설마 답임 번호 아직 모르니?
학교에서 너네 집 금방 간다!

08 코로나로 3행시를 지어봅시다.

- 20318 조윤희: 코: 코로나로 / 노: 노심초사 하지말고 / 나: 나아감으로써 발전하자.
- 20821 정승호: 코피나도록 /노는 애들은 / 나중에 피땀싼다
- 30330 조영탁: 코로나, / 노!, /나한테 오지마
- 10817 송주혁: 코 - 코로나로 인해 / 노 - 노라버렸다. / 나 - 나와 친구들이
- 30332 최진규: 코인노래방에서 / 노래부르고싶다 / 나만그래?
- 20325 유기훈: 코 로나야 / 노 때문에 / 나 힘들어
- 11117 이선우: 코가 훌쩍 / 노란 콧물이 나온다/ 나 코로나인가
- 20304 김현중: 코 : 코로나로 / 로 : 로망이 사라진 /나 : 나의 고등학교 생활
- 10721 이용주: 코: 코로나 / 로: 로맨틱하지 않다 / 나: 나에게는

1114 심재만: 코: 로나로 / 로(노): 무 힘들었지만 / 나: 중에는 추억으로 남겠지?
 20208 김현우: 코끼리가 / 노래한다 / 나나나나나나(죄송합니다)
 10610 김은결: 코: 코올라 먹고 / 로: 로이스 초콜릿 먹던 / 나: 나의 수업시간
 21126 조영우: 코로나 때문에 / 로맨스도 못하니 /나는 슬프다
 30505 김두용: 교수술한 누나 / 노쳐녀지만 / 나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
 30304 김관형: 코사인 2파이 더하기 / 로그 100000 / 나누기 1/ 337
 11125 전세현: 코: 코가 큰 / 로: 노태현 쌤 / 나: 나보다 영어 잘하심



09 **고생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30816 박지호: 코로나때인지 모두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다 다들 성공하길!!

익명(마스크좀벗자): 코로나에 시달리고 1년이 지나니 고3이네! 모두 코로나 걸리지 말자. 우리 모두 대학 합격할 때쯤엔 코로나가 종식돼 있을 거야! 아...마도?

20221 정세윤: 코로나 없었을 때 만났다면 다들 엄청 친해졌을거같은 친구들인데 아쉽다

10821 이경환: 2학기 동안 학교에 나간 적이 많진 않아서 친한 애들보다는 안 친한 애들이 더 많아 아쉬웠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같이 좋은 추억을 쌓아나가자!

10828 한승수: 수학여행 체육대회 다 없어졌지만 이런 처음 경험한 일들을 너희랑 할 수 있어서 좋았어

21124 정명진: 정시 화이팅

10220 이의준: 학교를 많이 가지 못해서 모든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네...ㅠㅠ 모두 힘든 상황에 고생했다

11222 이준현: 우리 반 친구들아 질문이 너무 많다 진도를 못 나갈 정도로...

20910 박도현: 재수하지 말자

21214 신민규: 모니터 화면으로 더 많이 본 친구들아 내년에도 모니터로만 봐야스겠다.

20212 박현석- 애들아 너희 많이 힘들고 괴로운지 알아 근데 몇몇 말고는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래도 우리 정신 차리고 생활 하자. 대학 가기 위해 이 학교에 꼬리박은 돈만큼 뽕 뽑아야지
 21218이상완: 코로나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학교생활 해나가느라 고생했고 시험 연달아 보느라 수고 많았다 우리!!!계속 고생하자 2학기까지도!!

21214 신민규: 애들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느라 수고했어.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해보는 것도 나중에 보면 즐거운 추억이 될꺼야.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서 고3도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하자

20909 박기준: 진짜 다들 공부 혼자 집에서 스스로 하느라 수고했고, 가끔씩 터무니없는 시험 범위가 있었을때도 같이 다들 끝냈다는 것이 신기하고 나 스스로 대견했어. 시험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꼭 얻어가는게 있었으면 좋겠어. 수고했고, 앞으로 더 힘내자!!!

20919 이석호: 애들아 코로나 유행이라는 힘든상황속에서도 열심히 등교하느라 수고 많았어. 마스크 끼고 학교 수업듣는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거 같아서 모두 대단한것 같아. 불행하게도 2학기에도 마스크를 낀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를것 같지는 않지만 잘 해내었으니까 2학기도 함께 이겨내자. 파이팅!

21225 정원영: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다가 처음 만날 때는 어색한 분위기에 답답한 환경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도 좋아진 기분이야. 각자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지소현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위기에 맞게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도록 열심히 잘 해보자!

21212 송성민: 처음에 만났을 땐 서로 서먹서먹하고 다시 만날때는 모니터 앞에서 마주보면서 더 어색했었지만 어느샌가 친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이름 부르고 내 머리에 손을 걸치는 것을 보니 많이 친해졌단 생각이 들어. 그렇니까 서로 의지하고 의지되면서 잘 지내보자.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반이나 지났으니까 걸어온 만큼만, 아주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우리 모두 파이팅하자!!

20908 노승완: 정신 없이 한 학기가 지나간 것 같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연속으로 준비하느라 모두 너무나 수고 많았어 :) 지금 이 시간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의 추억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 2학기도 정신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항상 힘내길 바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한 너는 그 누구보다도 밝게 빛날 테니까.

21229 허은: 너들은 나보다 시험 잘봤지 나는 이만 정시의길로 가려고해 너희들은 아직 수시에 남아있지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게 2학기중에 너희들도 동참할거라고 믿어낸 먼저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잘있어 수시러들아

10 **코로나와 함께한 1학기, 나 자신에게 해주고 이야기가 있다면?**

- 처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봐서 소심해졌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친해지고 잘지내고 있는거 같아. 힘든일도 많았고, 슬픈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기쁘고 행복한 날도 많았지. 수업도 뒤죽박죽 정신도 오락가락 정말 휘청휘청 지냈는데 어느새 벌써 1년의 반 이상이 지나갔네 ㅎㅎ 수고했어.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내자.
- 코로나라는 이변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을텐데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그걸 기세로 앞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여기에서 멈추기에는 너무 아쉽잖아? 기왕 점수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더 높게 뛰어보자. 주저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를 노력으로 발전해보자.
- 이번엔 코로나 터지고 3월부터 공부 많이 한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 아직까지 스스로 공부하는게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작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렸던 것처럼 이번 학기에도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못했지? 그래도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에 비해 더 나은 성적 받은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 다음 학기 때는 꼭 열심히 하자.
- 처음에는 '코로나 덕분에' 학기를 늦게 시작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니 '코로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쉽다. 시간이 적어서, 할 것이 많아서 못 이룬 게 많아 그 어떤 때보다 아쉽고 한편으로는 새로웠던 1학기인 것 같다. 그 누구보다 똑똑한 나니까 2학기 때는 후회 없이 더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한다.
- 온라인수업...안보여도 잘 하자!!
- 공부 좀 하자. 너는 자기합리화를 너무 잘해 이제부터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공부해보자. ㅋㅋㅋㅋㅋㅋ 너무 잘하고 있진 않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인정해 줘. ㅎㅎ
- 온라인이기에 오프라인에 비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던 나야. 2학기 때는 온라인 때도 수업에 집중하자. 게임은 이제 접고 공부에 집중하자. 다음 2학기 때도 이 상태면 눈 앞이 캄캄해질거 같아. 성적이 안나와도 좌절하지 말고 공부했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빛을 보게될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파이팅!
- 년 정시파이터야 내신기간 아닐때도 공부열심히하고 학교에서 수능과목은 열심히 듣자. 안그러면 1년더해야돼 대학가서 놀자 제발 재수할 돈으로 컴퓨터 사야될거 아니야
-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했지만 공부하기엔 정말 좋은 환경이었는데 과거의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한 대 치고 싶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자.
- 집에만 있느라 운동도 못하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공부 좀 하겠다고 앉아있기는 참 많이 앉아 있느라 고생 했는데 ㅋ 그래도 좀만 더 노력하고 꾸준하면 하면 년 성공할 수 있을꺼다 임마. 모든 일에 합리화하지 말고 좀만 더 노력하자

11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 | | |
|-----------|---|
| 20821 정승호 | 신문물을 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 11106 김재현 | 쌤 말 안들어서 죄송했습니다 |
| 10701 강민수 | 1년 동안 온라인 수업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 사태 중에도 보인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 10819 유승환 | 항상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10217 오정훈 |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한 학교생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 20907 김인후 | 코로나로 힘들셨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
| 10610 김은결 | 애들 깨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 20625 정유승 | 코로나로 하는 온라인 수업임에도 실시간으로 최대한 수업 해주신 수학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
| 21217 이동원 | 온라인 강의가 현장 강의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영상 몇 개 만들어 보니까 진짜 힘든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 21227 최원우 | 따라해요 선생님들 |
| 20318 조윤희 | 선생님들, 한 해 온라인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 10832 이진호 | 많이 나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했습니다..(구벽) |



영화비평

영화 <감기>를 보고 깨달은 신뢰와 협조의 중요성

10701 강민수

대한민국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례 없는 전염병 유행 사태 때문에 익숙했던 일상을 잃고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 <감기>를 통해 전 인류,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재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의 배경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이다. 해외에서 온 밀입국자들을 통해 신종 바이러스가 분당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 방역당국이 손을 쓰기도 전에 이미 사망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정부는 바이러스가 분당 밖으로 퍼져 대한민국 전체가 위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당 격리를 결정하고, 시민들을 격리 캠프에 모아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통제를 위해 시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한 정부는,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았다가 비닐봉지로 싸서 불에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격리시설 내부의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영화는 기적적으로 항체를 발견하여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기 전에 치료제를 개발하고 사태를 종식시킨다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영화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중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우한시를 봉쇄했다. 그 이후 내부 정보는 완전히 통제되었다. 우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방치되고 있고, 길거리에 시신이 놓여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한 중국인 프리랜서 기자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 의해 격리되었다. 사태 초기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한 중국인 의사 리원량(李文亮)은 중국 공안의 강요에 의해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해야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끝까지 자신들이 행한 부당한 강요, 협박과 정보 은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은 <감기>에 묘사된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물론 영화에서 묘사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우거나 군인들이



격리된 민간인들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 등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영화적 과장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화 속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듯이, 현실의 중국 정부 역시 정보를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우한시민들은 약 4개월간의 격리기간 동안 매일매일 바이러스의 공포와 정부 당국의 강한 통제 속에서 불안에 떨며 피폐한 생활을 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초기 대응은 전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초래했다.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바이러스는 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007,149명으로, 국민 17명 중 1명 꼴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셈이다. 또한,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 초기에 투명한 정보 공개로 바이러스 전파를 어느 정도 차단했다고 평가받는다. 2020년 3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때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를 통한 철저한 역학조사로 바이러스가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광복절 집회 관련 집단 감염 사태, 2020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 사태 전까지의 효과적인 방역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우려스럽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전세계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였고, 각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차례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백신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앞서 이룩한 방역성과를 홍보하는 데에 열중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불신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사회적 불신이 더욱 심해진다면 영화 <감기>의 사태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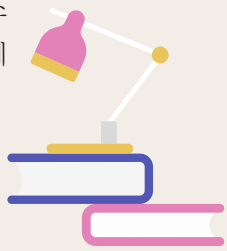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2021년 1월,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전국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등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불필요한 의심을 버리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한다. 또, 정부는 백신이나 지역사회 감염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신뢰관계를 유지할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초의 위기를 나름 현명하게 극복했듯이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참신하고 기발한 수업의 한 장면!
1,2학년 미술시간(정다희 선생님)에 진행된 '아무작품 챌린지'에서 학생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아무 작품 챌린지]
Covid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이 문을 닫는 가운데, 미국 게티미술관(Getty museum)이 시작한 챌린지로, 자신이 좋아하는 명화 작품을 선택하여 집에 있는 아무 물건으로 재현해보는, 명화 패러디 챌린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 #gettymuseum challenge를 검색해보시면, 전세계인들의 재미있는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0105 김대경 (자유의 여신상_프랑스) 10106 김대현(르네 마그리트-겨울비) 10107 김로빈(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10117 윤찬희(키스해링)



10123 박건형(마네_생선이 있는 정물) 10228 최민준(고흐_귀를 자른 자화상) 10231 김선호(바다위의 메이플라워 호) 10311 배한서(피카소)



10314 안태현(안반에이크_아르놀피니부부의 결혼식) 10316 유준성(수녀_테레사) 10317 이경민(모네) 10322 장원혁(피카소_꿈) 10331 황현수(다빈치_흰 족제비를 안은 여인)



10509 김성일(몽크_절규) 10515 박승영(이중섭_황소) 10519 신동민 10605 공지혁(앙리 마티스_이카루스)



10617 배병천(다비드_나폴레옹) 20101 권찬혁(피리부는 소년) 20109 박지훈 20112 윤영규(모딜리아니)



20117 이진혁(고흐_비탄에 잠긴 노인) 20120 조현찬(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20211 박재완 20305 노정현(모딜리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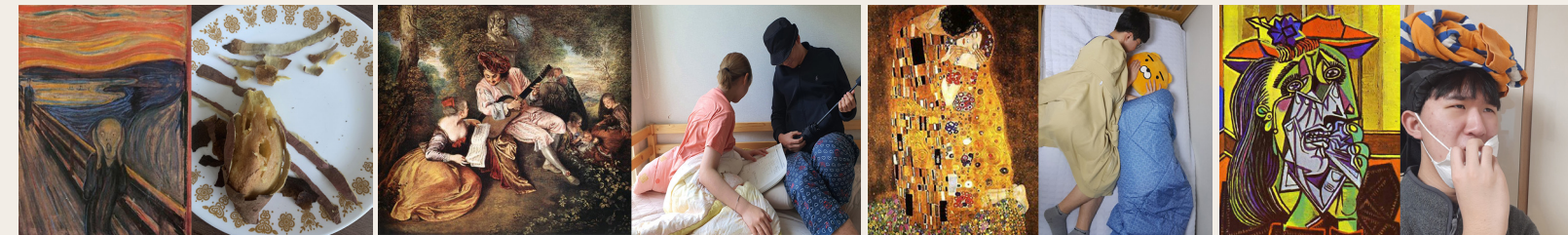
10607 김동욱(고흐_별이 빛나는 밤) 20110 신호성(이중섭_황소) 20408 문준호(다빈치_최후의 만찬) 20417 이규탁 (테오안센) 20511 안수홍(에드워드 호퍼)



10607 김동욱(고흐_별이 빛나는 밤) 20110 신호성(이중섭_황소) 20408 문준호(다빈치_최후의 만찬) 20417 이규탁 (테오안센) 20511 안수홍(에드워드 호퍼)



20405 김준영(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20410 박재우(고흐_비탄에 잠긴 노인) 20419 이석현(고흐_귀를 자른 자화상) 20420 이시우



20512 오근호(몽크_절규) 20520 이진형(Watteau_사랑의 노래) 20604 김민찬(클림트_키스) 20630 최준교(피카소_우느여인)

보인고 이모저모

5



친구에게 / 서윤덕

구구절절이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좋은 너
 신이 내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너를 내 친구로 만나게 한 거라 생각해
 스산한 가을바람 불어올 때에
 내가 향 좋고 따뜻한 차 만들어갈게
 낙엽 쌓인 길을 걸으며 삶을 이야기하자
 너로 인해 가을이 행복하고
 다가올 겨울도 춥지 않을 거야
 우리 오래도록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자
 언제라도 기댈 수 있도록



INTERVIEW



1.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에서 이제 2009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국어교사 곽광용입니다. 현재 1학년 뒷반 국어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 꿈이 교사이었을까요? (혹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의 변천사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 솔직히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꿈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수학에 흥미가 없었고 잘 하지 못했어요. 과학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중학교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흥미가 있지 않았을까 돌아켜봅니다. 그래서 자연계가 아니라 인문계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내신 성적도 받아보고 학력평가도 치르면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를 좋아했고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진로에 대해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자습서를 보다가 황진이의 시조를 접했어요. 1학년 학생들은 다 알죠? 동지 설날 긴긴 밤.. 그 시조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조선시대에, 그것도 당시에 차별받던 여성이 관념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마음을 전달하더니!

그전까지는 재미있는 문학 작품을 읽어도 제가 즐거운 선에서 그쳤다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제가 느낀 신선한 충격을 다른 사람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어교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어요.

3.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별명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제가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에는 한 반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개성 있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다지 튀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농구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라면 먹고 학원 갔다가.. 하는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제 행동이나 성격과 관련된 별명은 없었구요, 이름이 특이하니까 닥광, 갑각류 등등의 별명이 있었죠.

4. 보인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 머리 속에 많은 학생들이 스쳐가네요. 공부를 잘했던 학생, 개성이 넘쳤던 학생도 많이 생각나지만, 아무래도 자랑 사연(?)이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그중에서 지금도 카톡을 자주 나누는 졸업생 얘기를 해볼게요. 그 학생이 1학년 때 제가 담임이었는데, 학교에 와서 항상 잠만 자는 거예요. 자느라 지각도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도 놀림을 받아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도 하지 못하는.. 학교 생활이 불행한 친구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지각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과 마찰도 잦았죠.

그러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를 불러서 손을 들고 있게 했어요. 보통 그러면 잠을 깨는데 그 학생은 손을 들면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혹시 이 친구가 잠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보냈는데, 실제로 그런 질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 의지로 잠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그래서 치료를

통해 많이 호전을 시켰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성격도 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돈도 저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잘 지내고 있어요.

5.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선생님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싶으신지?

● 교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중에는 저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감정 없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렇구요. 가끔씩은 이러한 사람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작가가 되어 글을 쓰거나, 대장장이가 되어 풀무질을 하거나. 그런데 혼자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손재주가 있어야 해요. 제가 교사로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제가 혼자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러한 손재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생존 전문가처럼 맨몸으로 뭔가를 푼다툼 만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참 부러워요.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교사는 해봤으니까ㅎㅎ 제가 가진 저만의 재주를 찾아서 개발하고 그 재주로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싶어요.

6. 이런 학생을 보면 정말 훌륭하다! 스승인게 뿌듯하다! 라고 여겨지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 교사 입장에서 제 말을 잘 듣고 교칙을 잘 따르는 학생은 무척 대견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자기 생각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해요. 교사 부모님께서 뭐라 해도 자신을 믿고 혼자 설 수 있는 학생을 보면, '아 애는 다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심성의껏 조언을 하고, 학생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그런 대화가 오고갔을 때 그 학생이 무척 자랑스러워집니다.

7. 교사로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당장 바뀌기를 기대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일부터 애는 이렇게 바뀌겠지하는 식으로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씨앗을 심고 하루 만에 꽃이 피우기를 바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학생이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내 수업과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

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제가 했던 말이 용기가 되었다거나 감사했다는 얘기를 해줄 때 정말 보람을 느끼죠.

8. 오랜 기간 3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시다가 작년 1학년 부장 선생님을 처음 맡게 되셨는데 3학년과 1학년 지도를 하시면서 느끼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2020년 1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보람과, 고충이 궁금합니다.

● 3학년 학생들과 3학년 담임교사는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별 다른 상황 설명이 없어도 적하면 척이죠. 상담의 내용도 거의 학업능력과 진학에 대한 것으로 국한이 되어있어요.

1학년 학생들과 1학년 담임선생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3학년 학생들보다 많은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생활을 꿈꾸고 있고, 담임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여러 가능성을 다 보살피고 관찰하고 계시죠. 복잡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만큼 다채로운 것 같아요. 1학년 담당교사로서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에, 한두 번의 실패에 상처를 입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9. 개인만의 취미활동이 있으실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 고등학교 친구들과 꾸준히 농구를 해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에는 즐겁게 운동했는데, 양쪽 어깨 인대가 파열돼서 더 이상 즐겁게 운동하지 못하게 됐어요. 또 친구들도 결혼과 육아로 자연스럽게 주말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지면서 모임을 못하게 됐죠. 농구공을 잡아 본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네요. 코로나가 끝나고 몸도 좋아지면 언젠가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10. 고등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으신 일은 무엇일까요?

●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관심이 있었던 신문반에 지원해볼까 하다가 흐지부지 넘어갔었어요. 동아리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매년 다른 동아리를 도전했어요. 같은 동아리를 했던 선배들과 아직까지 교류를 나누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11. 선생님만의 공부 특급 비결이 있다면?

●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는건데,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능숙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봐주세요. 그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내가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죠. 한 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공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습관을 기른 사람에게는 성적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등급 성적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수학에 정말 흥미가 없었고 잘 못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와 국어에서는 얻지 못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적은 당연히 따라서 올랐구요.

12.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 아무래도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화면 건너편에서 보이는 친구들이 헤드셋을 쓰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저는 안 들릴 때, 제 수업 화면은 넘어가지 않는데 학생이 쓴 안경에 비친 모니터 화면이 뭔가 화려할 때..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13. 2020학년도 1학년 학생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신다면?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 언뜻 '무당벌레'가 떠오르네요. 당연히 1학년 학생들이 벌레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작고, 외부의 충격에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리기도 하지만, 서로서로 모여 시련의 시기를 견디고,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진취적인 특성을 가진 무당벌레의 모습과 1학년 학생들이 닮은 것 같아요. 보인고등학교라는 진딧물을 자양분 삼아 언젠가는 화려한 날개로 마음껏 세상을 누비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14. 2021년을 맞이하여 새해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외에는 어떤 바람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보인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15. 선생님 가족이 궁금합니다.

● 저에게는 저를 늘 아껴주는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개구쟁이 두 남매를 키우며 하루하루 복닥복닥 살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가장이 되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어요.

16. 보인고 자랑을 해주세요!

● 보인고등학교는 보물상자같은 학교입니다. 내가 직접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저 상자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상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열어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어나간다면, 낡은 상자들은 보물을 쏟아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인고등학교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노력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장종목입니다. 비록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보인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내신과 수능을 모두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수업 목표인 교사입니다.

2. 선생님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과학 선생님이 꿈이셨을까요? 만약 지금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실까요?

● 많은 보인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러하듯,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제 꿈은 이것이다.'라고 할 만 한 뚜렷한 꿈은 특별히 없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꿈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또는 편하게(웃음) 살 수 있을까?'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만을 했었던 거 같아요. 입시를 치르면서 사범대학(물리 교육과)에 진

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교사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사범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이 주로 많이 진학을 하였던 공학계열로 대학을 택했다면 저는 지금쯤 아마 일반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에 다니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부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전 현재의 직업을 선택한 것에 전혀 후회가 없고, 결과적으로 인성이 바르고 마음씨 착한 보인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아주 만족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교사생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웃음)

3. 평소 학교 밖에서 취미 생활이 있으실까요?

● 취미요?(웃음) 저처럼 별다른 취미가 없는 사람도 찾기 힘들 겁니다.(웃음)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씩 가지기 마련인데 저는 사실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그저 '숨쉬기 운동'이 취미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굳이 하나를 말하고자 한다면 TV 시청입니다.(웃음) 그런데 시간이 날 때 보는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구요. 웬만한 TV 프로의 이름 인기 있는 드라마, 예능 등은 모두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것은 본방으로 매주 볼 때가 있지만 주로 완결이 되고 나면 몰아보기를 하는 편입니다. 본방을 사수하면 다음 편을 기다리는 일주일 너무 힘이 들거든요.(웃음) 몰아볼 때 어느 정도로 몰아보냐면 총 24부작이었던 '미스터 션샤인'같은 경우는 이틀, 총 16부작이었던 '비밀의 숲 시즌1'은 하루 만에 정주행 했으니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폐인처럼 보는지 아시겠죠? 최근에는 '정이로운 소문', '스위트 홈' 등과 같은 웹툰과 드라마를 모두 정주행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의 취미 생활을 더 이야기 한다면 바로 캠핑입니다. 캠핑 매니아 강남구, 백기곤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날씨가 좋을 때 가끔씩 캠핑을 가곤 합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의 가지 못했지만요, 주말에 캠핑을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잠사라도 있다 보면 새로운 한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잠깐이지만 사색을 즐길 수도 있어요.

4. 교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 감동스러운 순간은 언제세요?

● 늘 뿌듯하고 감동스럽다고 하면 가식이겠죠? 정말인데(웃음) 그러면 특별히 뿌듯하고 감동스러웠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야 할 것 네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2, 3학년은 연속으로 담임을 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대로 겪고 있었던 학생이었기에 그 학생 한 명의 생활 지도를 하는 것 만해도 벅찼답니다. 2년 간 수도 없이 상담을 하면서 혼도 내고, 달래도 보고, 부탁도 한 끝에 그 학생은 중학교를 겨우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5월 15일, 장문의 손 편지를 한통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학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말과 함께 그간 자신이 어떻게 지내 왔는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손 편지였어요. 편지에서 저에 대한 감사의 표현 등은 전혀 없고 오로지 본인 이야기만 적혀 있어 본인 자랑하려고 편지를 보낸 건가?(웃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편지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던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께 주례를 꼭 부탁 드릴테니 예전에 속 많이 써게 했다는 이유로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뭔가 묵직한 감동이 느껴졌어요. 이 학생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기 보다는 10여년의 세월이 지나 저는 이 학생을 많이 잊고 살았는데 여전히 저와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학생들이 작은 질문에도 성심 성의껏 대답해주는 그 매순간이 저에게는 뿌듯하고 감동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약간 감동스러워요.(웃음)

5.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겠지만,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중학교 1,2,3학년 과학 교과서를 집필했답니다. 여러 분들은 제가 집필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2021학년도에 입학하는 보인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제가 집필한 교과서로 중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했을 겁니다.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EBS 강의', '수능출제' 등의 일도 하고 싶었지만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교과서 집필이었습니다.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중 몇 개 안되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우연히도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 분들이 공부하는 단 1권의 교과서를 쓰기 위해 꼬박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별 것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 놀랍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만 이야기 하자면, 예를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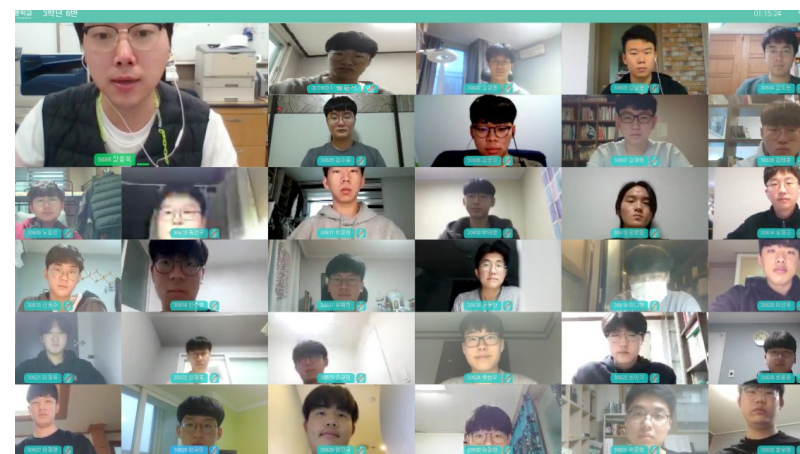
어 각 대단원 또는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쉬어가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1쪽 분량의 내용을 집필하는 것에도 꼬박 1주일이 걸린 적이 있으니...(내용 구성, 집필, 편집, 삽화 작업, 사진 작업 등으로) 오래 걸릴 만하죠?

또한, 교과서만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 '평가 문제집', '자습서' 등은 물론 'CD자료', '홈페이지용 탑재 자료', '주석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등도 모두 동시에 집필하기 때문에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 습니다. 여러 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죠?(웃음) 집필기간은 총 3년 이었는데, 평소 일과시간에는 수업 및 상담 그리고 방과 후 수업 등의 학교일을 해야 했고 당연히 그것이 우선이기에 집필 작업은 결과적으로 남는 시간에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잠을 못자는 경우도 많았고 주말이면 늘 마라톤 회의를 하곤 해서 그 당시에는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교과서 집필 작업은 수명을 갉아 먹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의 강도가 상당히 심했어요.

하지만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제 이름이 교과서에 인쇄 되어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제가 집필한 교과서를 이용해 수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6. 학창시절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셨어요?

● 말 그대로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일례로 시험이 끝나지 않은 중간고사 기간에 몇몇의 친구들과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루 종일 PC방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친구 부모님들끼리 서로 연락이 되어 저와 친구들이 독서실에 없었다는 게 들통이 난 상태였죠. 그뻘 학생들에게 핸드폰이 잘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집에 가



기 전까진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이유들로 혼난 경험이 아주 많았었으니 어떤 학생이었는데 짐작이 가죠?(웃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학창시절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의 온라인 게임이 태동하면서 PC방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시절이었으니 제 잘못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웃음)

7. 과학과 관련된 기억에 남는 외부 활동이 있으실까요?

● 올해 보람이 있었던 활동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학 친구들과 함께 했던 연구 프로젝트 활동인데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한 '2020년 과학 교사 연구회'였습니다. 생활 속 첨단 기술을 이용한 탐구 활동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 활용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첨단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과 친숙하게 해볼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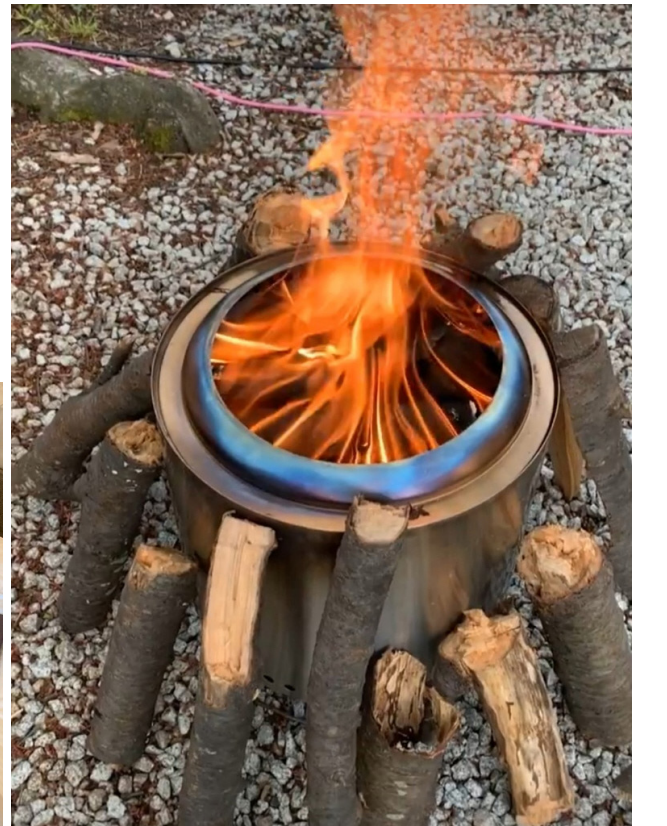
이 활동 자체를 설명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대학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일을 하다 보니 아무리 그 일이 어려워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또한, 놀면서 일하는 기분으로 마음 편히 일을 하였는데 일의 효율성도 아주 높았고 그 결과 저희 프로젝트물이 결국 수상까지 하게 되었어요. 개개인의 능력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누구랑 일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와 다 친하고 잘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가끔씩 모둠별 활동을 하거나, 학급 더 나아가 학교 단위의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 모두 모두 두루 친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8.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보인고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졸업을 앞둔 우리 고3학생들, 3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 유학을 가는 학생들,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 등 지금 당장은 졸업 후의 길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보인고등학교 학생들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것입니다. 선생님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1,2학년 학생들에게는 감상적인 말 대신 조금은 현실적인 말을 짧게 해 주고 싶네요. 예전 예능이긴 하지만 박명수의 말로 대신합니다.





INTERVIEW



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한송이입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음악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학생들 덕분에 웃는 일이 많아서 아주 행복한 교사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 어린 시절, 제 삶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요. 그런 음악 배경을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당시 태교로 시간이 될 때마다 음악을 들으셨고, 갓난아기 시절 제 기억에는 없지만 언제나 음악을 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4살 때 처음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집으로 돌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보 위에 피아노를 치는 제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피아노는 살 수 없는 형편이라 건반 무늬로 된 천을 구해 베개 커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몇 년 후 피아노를 선물로 사 주셨지요. (웃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음악은 제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면 피아노 독주와 반주는 언제나 저의 몫이었고, 음악과 관련된 행사는 저를 위해 만들어진 무대 같았어요. (참고사진) 음악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내 이야기

3. 학생들에게 음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것들은 그저 느슨하게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음악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보다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지요. 말이나 글, 그림이나 소리를 몸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보다 확실히 기억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맞아. 저랬지? 나도 저런 느낌이었어.' 하고 미루어 인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술 창작, 예술 감상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이죠. 설령 그 작품에 공감하지 못하더라도요. 그 다음을 인식하는 과정속에서 세상의 다양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를 통해 상상력과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따로, 또 같이 존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예술이 우리 삶 속에서 갖는 진짜 의미와 가치들입니다.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엘 시스템아(El sistema)'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학교 대표 음악 봉사 동아리 이름인데요. 사실 이 엘 시스템아는 1975년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음악가



였던 아브레우가 시작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제대로 된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던 빈민가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음악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놀랍게도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엘 시스템아엔 "기적의 오케스트라"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일단 악기 하나를 완전히 익히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때문에 아이들은 악기를 배우며 인내하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었죠. 악기를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악기의 소리와 강약을 조절하고 다른 아이들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법을 찾았지요. 빈곤과 폭력에 노출되어 절망감이 가득했던 아이들은 처음으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어요. 이 성공의 경험은 훗날 다른 무언가를 할때에도 겁 없이 도전하도록 하는 귀한 자산이 되었죠. (추천 음악/영상 : Gustavo Dudamel - Danzón No. 2) 학생 여러분에게 음악이 필요한 이유는 그저 '음악이어서.'가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대로 음악을 삶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의 깨우침이라고 생각해요.

4. 선생님께서 음악의 다양한 분야와 장르 중에 좋아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실까요?

●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를 즐기는 편이라 딱 하나를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대학생 때는 클래식을 전공하다 보니 괜한 일탈로 'Jazz'와 'Rock'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는 '퓨전 음악', 30대에는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 다양한 종류의 음악으로 '합창'과 '아카펠라'를 노래하고 공연을 했었더랬죠. 이후에는 뮤지컬에 빠져서 한동안 뮤지컬을 취미로 했는데 춤이 안되서...(눈물) 하고 싶은 여주인공은 못하고 치매 걸린 할머니 역('오! 당신이 잠든 사이' - 이길례 역), 종갓집 만머느린데 치질로 죽는 역('형제는 용감했다' - 예산택 역) 등 다양한 멀티를 맡았어요. 아, 보인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또 하나 좋아하게 된 음악 장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힙합과, '걸그룹'이 부르는 K-POP 이에요.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가끔 자유시간으로 음악실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해가 바뀌어도 같은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가시, 응급실, 질풍가도...그만 듣고 싶어요..TT)

5. 학생들과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음악 수업을 지향하고 계실까요?

●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의 학창 시절 음악 수업을 떠올려 보면, 이론을 배우고, 성악곡만 부르고, 별다른 설명 없이 고전 오페라 영상만 감상했던 기억이 전부라서 음악 교사가 되면서 결심했던 부분 중 하나는 '모두가 즐거운 음악 수업을 하자.'였어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보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창 시절을 회상했을 때 고등학교 음악 시간이 '참 재밌고 즐거웠던 음악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참고 사진-수업)

6. 2020년 담임 선생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 2020 담임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참 많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스승의날에 온라인으로 종이에 한 글자씩 손글씨를 써서 화면에 비추어 주면서 감사 인사를 했을 때였어요!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컸었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어찌하든 감사함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7. 마지막으로 보인고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사랑하는 보인고 학생들, 2020년 코로나로 모두가 처음이고 낯선 상황이었을텐데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와준 여러분들이 참 기특하고 고마워요. 특히나 건강하게 보내준 것이 가장 감사해요.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반의 급훈을 소개합니다!

-1학년-

- 1-1 : 처음처럼
- 1-2 : 항상 성실히, 항상 최선을 다하자.
- 1-3 :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 1-4 :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밝은 미래가 BOIN다~
- 1-5 : Woo Ju Choi Gang (우주최강)
- 1-6 :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 1-7 :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자
- 1-8 : 칠판 보기를 유튜브 보듯이 하라
- 1-9 :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 1-10 :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 1-11 : Carpe Diem (현재를 잡아라!)
- 1-12 : 한송이 썸과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우리반의 급훈을 소개합니다!

-2학년-

- 2-1 : 착한 자유
- 2-2 : 껍질을 깨고 일어난 힘찬 날갯짓
- 2-3 : 1년을 아름답게 그리자
- 2-4 : 教育 (교육)
- 2-5 :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 2-6 : $\lim_{\text{공부} \rightarrow \infty} 2\text{년 후} = \text{행복}$
- 2-7 : 우리는 같이 있고 가치 있다.
- 2-8 : 바위처럼 단단하게
- 2-9 : 우리 엄마도 계모임에서 말 좀 하자
- 2-10 : 목표가 확실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다.
- 2-11 : 무한불성 (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다)
- 2-12 : $\int \text{노력} dx = \text{행복}$



우리반의 급훈을 소개합니다!

-3학년-

- 3-1 : 우리, 함께
- 3-2 : 서두르지 말고, 그러니 쉬지도 말고
- 3-3 : 당신은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 3-4 : 야 너두 할 수 있어!
- 3-5 : 성 공
- 3-6 :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의 주인은 “나”였는가
- 3-7 : We are getting better everyday
- 3-8 : 꿈을 꾸는 것은 한순간
꿈을 이루는 것은 매순간
- 3-9 : 내일 내릴 비에, 오늘 우산을 펴지 말아요.
- 3-10 : 내 의지로 여기서 끝을 보겠노라.
- 3-11 : 애들아, 우리 함께 가자.
- 3-12 : 재수 없게 공부하자.

고3의 마무리 한 마디!

1. 보인고 3학년 여러분,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 당부의 말이 있다면?

- 원격수업 덕에 복 받은 줄 알아라.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공부해라
- 내신 열심히 하세요
- 저는 성적이 2학년 때 급상승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현재 1학년 2학년 후배분들 중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으신 분도, 아니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으신 분도 방심하시면 안 되며,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받으신 분도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적은 항상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선망하는 대학교의 인재상이 '성장하는, 가능성 있는 인재'입니다. 성적 그래프가 우상향인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학교라는 뜻입니다. 성적이 맨 위에서 상수합수를 그리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상 그건 극히 일부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러니, 현재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바로는,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쉬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 지나간 과거는 우물 속으로 비치는 밝은 달과 흐르는 구름, 파란 바람, 가을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바라보시기만 하고, 후회하던 자신을 추억의 사나이로 남기며 새로운 시작으로의 발돋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 일단 열심히 하면 어딘가 붙어있을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 각종 교내 대회들을 관심 없다고 놓치면 나중에 생기부를 보면 정말 후회가 되니 참여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공부는 정말 하루하루를 미루면 나중에 다른 친구들의 실력을 따라가기 점점 힘들어지므로 지금 놓치지 말고 해야한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꼭 사회에서 만날 친구들이므로 3년 동안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친해져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파지기 쉬우므로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관리,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 앞으로 학교 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 생각하고, 건강하게 지내는게 최우선이자 모든 것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 보인고 생활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런대로 즐기는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즐기고 있다가는 내신을 망쳐버릴 수 있으니 공부 빼고는 뭐든 적당히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꼭 내신챙겨서 수시로 대학가세요
- 모든 기회를 신중히 생각하고 도전해보자
- 공부할 때 슬럼프가 올 텐데 중간에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 야자 안하면 재수다
- 코로나 잘 이겨내고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2.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보인고 1학년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학년 처음부터 내신 성적 올리기
- 처음 입학했을때 더 노력해보고 싶어서
- 이런 맵소사
- 1학년 오수시간 - 뭐랄까 오후에 볼 다 끈 교실이 아늑하고 좋았음
- 언제 : 아무때나
- 무엇 :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지금으로 온다
- 왜 : why
- 사실 저는 과거의 그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저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매 순간의 저는 최선의 저 자신이었다고 항상 믿고 있기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날짜만큼 있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굳이 돌린다면 1학년 수련회 당시로 돌아가 한 번 더 수련회의 재미를 맛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 생각해보니 현재 1학년 2학년 여러분은 이런 친구들끼리의 여행의 재미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만큼의 공부를 위한 시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간다면 그것보다 더 재밌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후배님들은 코로나가 없던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꼭 좋은 결과를 성취하시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행을 하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도 항상 화이팅입니다!
- 대주컵
- 소록도에 가고 싶다. 친구들과 참 즐거운 추억이 많았다.
- 1학년 입학식 날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1학년 때의 성적이 너무 아쉽기 때문이다.
- 1학년 3월 모의고사 볼 때, 그때로 돌아가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 1학년 2학기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내신관리를 약간 미흡하게 했던 점이 아쉬웠는데, 이를 좀 더 향상시켜 더 나은 성적을 받고 싶다.
- 1231 수능 답을 기억해서 빨리 수능을 봐서 더 잘보고 싶습니다.
-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으로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네요
- 1학가 첫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싶어요
- 1학년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하고 싶습니다

3. 고3 같은 반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을 함께 한 친구들에게 한 마디씩?

- 화이팅
- 수고했다 애들아
- 수고했다
- 애들아 가끔 졸면서 코골아서 미안해
- 코로나 시국에 학교 나오서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 코로나라는 악재와 가장 치열한 고3이라는 상황이 더해져 고3 같은 반 친구들과 더 친해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앞으로 살날이 창창한 우리 반 친구들에게, 각자의 길은 다르겠지만 모두 그 길이 밝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일이 있길 바라며, 모두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화이팅
-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3 생활이 더욱더 힘들었는데 수고했고 이제 꽃길만 걷자~ 1년 동안 고마웠어^^
-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자!
- 지난 1년간 모두 수고했어. 모두 정말 고마워.
- 좋았다
- 대학가서 자주 만나자 애드라
- 수고했고 앞으로 다들 성장해서 만나자
- 수고했다!!
- 애들아 고마웠다 뭘하든 재밌게 놀면서 지네
- 코로나 때문에 같이 축구 많이 못해서 아쉽다 ㅁㅁ
- 어려운 시기에 다들 고생한 것 같아요





10306 김중현

처음에 온세미로에 지원할 때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선생님께서도 잘지도해 주시고 친구들도 다들 열심히 해줘서 잘할 수 있었고 동아리에서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면서 얻은 게 많아 좋습니다.

20215 윤영운

교지편집부에서 나만의 기사를 쓴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한 근거를 담아 정리할 수 있었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 학우들에게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전교생이 읽을 수 있는 교지를 제작하는 것에 참여하였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20112 윤영규

교지편집부에서 기사 작성을 하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것에 대해 더 조사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그것을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았던 점이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게 꽤나 즐거웠습니다.

10931 이형준

교지편집부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관심 분야에 대해 심화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21128 조연준

교지편집부에서 자유기사와 특집 기사를 쓰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조사하면서 내 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많아 좋았다.

10701 강민수

교지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이라는 감정의 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물을 접할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더 나은 교지를 만들고, 더 큰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20218 이종현

교지편집부에서 자유 기사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기사로 정리할 수



있었고 동문 인터뷰나 동아리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해 의미있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1 권찬혁

재미있었어요

20303 김정원

교지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직접 기사를 써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지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624 정지성

직접 기사를 써보니 글 쓰는 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두꺼운 코스모스 책을 보고 왜져려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작가가 기울였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엿보입니다.

20501 권민재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년 내내의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저의 작문 실력을 올릴 수 있었고, 더불어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 수 있는 값진 활동이었습니다.

10215 안성진

교지편집부에서 내가 직접 기사를 써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기사로 써 보며 느낀점들을 정리해보았고, 내가 쓴 기사가 교지에 등재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어서 좋았다.

20216 이승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자주 못 가서 힘들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잘 매웠고 교지도 작년만큼 같았듯 싶다

20106 남정운

교지편집부를 통하여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조사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었고 제가 작성한 그 기사를 전교생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동문 인터뷰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21109 박상배

동아리 활동을 하며 나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